

만고에 우뚝한 한라의 영산 / 아리인 정기로 맞아낸 인걸 / 세기는 부른다
제대 건아야 / 오! 우리는 진리의 탐구자 / 오, 우리는 문명의 선구자 //
한라산 하리에 바람이 일며 / 태평양 기슭에 물결이 칠 때 / 가슴이 뛰는다
제대 건아야 / 오! 우리는 문화의 창조자 / 오, 우리는 역사의 건설자 //
진실 불공 협동과 진취 / 우리의 갈 길은 여기에 있다 / 헤치고 나가자
제대 건아야 / 오! 우리는 민중의 지휘자 / 오, 우리는 조국의 계승자



진리
정의
창조

1954년 5월 27일 창간 (주간) news.jejunu.ac.kr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2013년 5월 8일 수요일 제892호

개교 61주년 기념 ‘아라대동제’ 28일 오후 6시 개막

야외음악당·한라터 등지서… ‘나도 아라스타’ 신청은 23일까지
풋살대회·길거리농구·떡방콘테스트 등 부대행사도 마련

아라대동제가 오는 28일부터 3일간 야외음악당 등지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 개막식은 28일 오후 6시부터 4시간동안 야외음악당에 설치된 메인무대에서 진행된다. 식전행사로 관현악 플래시몹, ‘주먹이 운다’ 등이 진행된다. 음악학부 관현악단 30명과 총학생회 20명으로 구성된 학생들이 관현악 연주와 퍼포먼스를 펼친다. 이어 ‘주먹이 운다’에서는 마음속에 담아두고 말하지 못했던 말들을 주변 사람에게 전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오후 7시 본 행사에서는 허항진 총장 축하, 김태환 총동창회장 격려사, 유병선 총학생회장 인사, 개막선언으로 진행된다. 이어 10시부터는 족석게임, 동아리공연, 연예인 축하공연 등이 진행된다. 특히 학생들의 끼와 재능을 발산하

는 장기자랑 무대인 ‘나도 아라스타’는 오는 30일 오후 5시부터 2시간여 진행된다. 이 행사는 노래, 춤, 풍트 등의 순서로 각각 진행된다. 이후 심사와 시상이 이어진다. 참가접수는 분야별로 나눠 받으며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한다. 부대행사로는 △총은일만배 5:5 풋살대회(29~30일 오후광밭) △총은일만배 3:3 길거리 농구대회(28~29일 한라터) △주자왕을 찾아라(29일 오후 1시~4시 본관 앞 주차장) 등이 진행된다. 그 외에도 △떡방 콘테스트 △희망거리(오후광밭길 28~30일) △교직원공연(29일 오후 4시~5시 30분 메인무대) 등이 진행된다. 흥선훈 부총학생회장은 “이번 축제의 테마는 ‘흔들리는 청춘에 꿈을 더해라’로 정했다”며 “취업난에 힘든 학생들을 위로하고 미래에 대해

28일 화요일	
17시	우리주점홍보
18시	플래시몹, 주먹이 운다
19시	대동제 개막식 동아리 공연 연예인 공연 (에일리, 배치기)
20시	
23시	
29일 수요일	
16시	떡방 콘테스트
17시	교직원공연
18시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19시	족석게임, 동아리 공연
20시	DJ 쇼
21시	연예인 공연 (다이나믹 듀오, 프라이머리, 자이언티)
30일 목요일	
17시	나도 아라스타
19시	연예인 공연
20시	대동제 폐막식
21시	연예인 공연 (키스, 다비치)

희망을 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명지 기자

치열한 경합…치솟는 젊음



6일 열린 언론홍보학과와 법학부 농구경기에서 선수들이 공을 다투고 있다.

캠퍼스에서 단과대학 체육대회가 열리고 있다. 지난 7일부터 이틀간 사회과 학대학 체육대회가 열렸다. 이에 앞서 지난 1일부터 이틀간 생명자원과학대학 체육대회가 열렸다. 김명지 기자

제대미전 12일부터… 100여점 선보인다

문예회관 제1전시실서

예술디자인대학 미술학부 학생들이 마련한 ‘제41회 제대미전’이 오는 12일부터 5일동안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제1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제대미전에서는 학생들이 창작한 서양화, 한국화, 조소 등 약 100여점의 전공분야별 작품이 선보인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술학부(전화 754-2810)로 문의하면 된다.

변호사 시험 합격률 ‘우수’

전국 평균 75% 앞질러
2기 졸업생 81.3% 합격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고호성)은 올해 시행된 제2회 변호사 시험에서 35명 응시자 중 27명이 합격해 77.14%의 합격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평균 합격률 75.17%보다 높은 수치다. 올해 전국 평균 합격률은 지난해 1회 변호사 시험 87.1%보다는 12% 포인트 떨어졌다. 이번 시험에서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2기 졸업생은 32명이 응시해 26명이 합격해 81.3%의 높은 합격률을 보였다. 올해 제주대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전국 로스쿨 중 중상위권, 지역거점국립대 로스쿨 중 상위권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제주대는 지난해 치러진 제1회 변호사시험에서 32명이 응시해 30명이 합격(합격률 93.755%)해 전국 8위, 지역거점국립대 1위의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다. 고호성 원장은 “올해 합격률이 전년보다 떨어졌지만 평균 합격률이 크게 낮아진 점을 감안하면 나름대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이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지원, 제주대 로스쿨만의 우수한 교육 시스템, 교수진의 체계적인 지도와 학생들의 노력이 이뤄낸 결과”라고 말했다.

‘재일한국인 연구의 오늘과 내일’ 10일 개최

정책·언어·이주사 등 점검
재일제주인센터 주최

‘재일한국인 연구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한 재일제주인센터(센터장 이창익) 학술대회가 오는 10일 문화교류관 2층 시청각실에서 열린다. 이번 학술대회는 재일한국인 연구 동향을 총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일한국인 연구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다. 이날 학술대회 개회식은 9시 50분에 열린다. 일정은 다음과 같다. ▲제1주제 재일한국인 정책 및 갈등(사회 송석연)=△남북한의 재일한국인 정책(변화)에 대한 연구 동향과 과제(발표 진화관 인제대·토론 이규배 제주국제대) △재일한국인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동향과 과제(발표 김부찬·토론 박배근 부산대) △재일한국인의 이념과 갈등에 관한 연구 동향과 과제(발표 최영호 영산대·토론 고성준) ▲제2주제 재일한국인 연구 연구와 이주사(사회 허남춘)=△재일코리아 연구에 관한 국내 외 자료 고찰(발표 임영인 전남대·토론 김동진) △재일한국인 이주사 연구 동향과 과제(발표 도노도루 마사루 도쿄대·토론 최현) ▲제3주제

회계 고시반 원생 모집

취업전략본부가 회계·세무사 고시반 원생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재학생, 휴학생 및 졸업생으로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감정평가사를 준비하는 자(학과·성별 관계없음)로 토익점수가 700점 이상인 자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10-8460-1114(실장 양동욱)으로 문의하면 된다.

2013학년도 제2학기 제주대학교 교수초빙공고

1. 초빙분야 및 인원

대학(원)	학과(부, 전공)	정원배정인원	채용분야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1	중국음운학(여성)
	사학과	1	한국근대사
경상대학	무역학과	1	무역보험론
사범대학	생물교육전공	1	생물교과교육론
자연과학대학	생물학과	1	미생물학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1	말임상학
대학원	풍력특성화협동과정	1	대형풍력발전시스템설계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1	법조실무(여성)
		1	방사선종양학
		1	해부학
	의학과 (전임교원)	1	소아청소년과학(소아신경학)
		1	안과학(망막)
		1	정형외과학(척추외과)
	의학과 (기금교수)	1	신경외과학(중재시술)
		1	마취통증의학(중재시술)
		1	응급의학
계		17	17분야

2. 지원 자격

※ 공통 및 분야별 지원 자격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공통 지원 자격

- 1)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2)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제주대학교 교수자격기준 연구실적환산산출기준」에 의거 교수초빙지원서 마감일 현재 교육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나. 분야별 지원 자격

1) 중국음운학(여성), 한국근대사, 무역보험론, 생물교과교육론 분야

-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최근 3년(2010. 6. 1. ~ 지원서 접수일) 이내에 지원자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 2편 이상을 국제저명, 국제전문 또는 국내저명학술지에 발표한 자.

2) 미생물학, 대형풍력발전시스템설계 분야

-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최근 3년(2010. 6. 1. ~ 지원서 접수일) 이내에 지원자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 2편 이상을 국제저명학술지에 발표한 자.

3) 말임상학

- 수의사 면허증 소지자.
-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해당 전공분야 임상경력 2년 이상인 자.
- 최근 3년(2010. 6. 1. ~ 지원서 접수일) 이내에 지원자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 2편 이상을 국제저명학술지 또는 국내전문학술지에 발표한 자.
- 수의신과학 강의 가능한 자.

4) 법조실무분야(여성)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국내변호사 자격 소지자로서 법조실무 경력 1 이상임(2013년 9월 1일) 기준 5년 이상인 자

5) 방사선종양학 분야

- 해당분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최근 3년(2010. 6. 1. ~ 지원서 접수일) 이내에 지원자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 2편 이상을 국제저명, 국제전문 또는 국내저명학술지에 발표한 자.

6) 해부학 분야

-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교수공제 공고일에 속한 달의 말일 기준).
- 최근 3년(2010. 6. 1. ~ 지원서 접수일) 이내에 지원자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 2편 이상을, Impact Factor 5 이상의 국제저명학술지에 발표한 자.

7) 소아청소년과학(소아신경학) 분야, 안과학(망막) 분야

- 해당분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해당 전공분야 지도전문의 자격이 있거나 전임의 경력 1년 이상인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 최근 3년(2010. 6. 1. ~ 지원서 접수일) 이내에 지원자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 2편 이상을 국제저명, 국제전문 또는 국내저명학술지에 발표한 자.

8) 정형외과학(척추외과) 분야

- 해당분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정형외과학 분야에서 지도전문의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최근 3년(2010. 6. 1. ~ 지원서 접수일) 이내에 지원자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 2편 이상을 국제저명, 국제전문 또는 국내저명학술지에 발표한 자.

9) 외과핵(간, 담도), 신경외과학(중재시술), 마취통증의학(중재시술), 응급의학 분야

- 해당분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해당 전공분야 지도전문의 자격이 있거나 전임의 경력 1년 이상인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 최근 3년(2010. 6. 1. ~ 지원서 접수일) 이내에 지원자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 2편 이상을 국제저명, 국제전문 또는 국내저명학술지에 발표한 자.

다. 분야별 우대사항

1) 중국음운학 분야(여성)

- 중국 고전 음운학 강의 가능자 공개발표시 참조

3. 공제 세부일정 : 세부일정표 ‘붙임’

4. 임용조건 등

2013. 9. 1.자 교육공무원으로 임용 예정이며, 임용직명, 임용기간, 임용조건 등은 관계법령 및 본고 인사 관련규정에 의한. 단, 기금교수는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제주대학교병원) 비전임교원으로 임용 예정이며, 임용직명, 임용기간, 임용조건 등은 관계법령 및 본고 인사 관련규정에 의한.

*국립대학 교원은 2011년부터 성과급제 연봉제를 적용하여 임용됨

5. 심사기준 및 절차 : 본고 전임교원신규채용전형지침에 의한

6. 제출서류

가. 채용분야 공통

- 1) 제주대학교 교수초빙 지원서(붙임서식) 1부.
- 2) 학력 및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원본 각 1부.
- 3) 외국어 박사학위 소지자는 한국연구재단의 박사학위 신고필증 반드시 첨부.
- 4) 경력증명서(교수초빙 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경력) 원본 각 1부.
- 5) 연구실적목, 연구실적을 공동발표자 목록 각 1부(붙임서식).
- 6) 석박사학위 논문 및 심사용 연구실적목 각 1부.
 - ※ 논문은 게재일자, 권(호), 게재호, 페이지가 부여되어 출판된 학술지만을 인정함.

나. 채용분야별 제출서류

- 1) 말임상학 분야
 - 수의사면허증 사본 1부.
 - 전문의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지에 한함).
- 2) 법조실무(여성) 분야
 - 변호사 자격증 사본 1부.
 - 법조실무 경력증서 1부.

3) 방사선종양학 분야

- 전문의 자격증 사본 1부.

4) 소아청소년과학(소아신경학), 정형외과학(척추외과) 분야, 안과학(망막), 외과핵(간, 담도), 신경외과학(중재시술), 마취통증의학(중재시술), 응급의학 분야

- 전문의 자격증 사본 1부.
- 지도전문의 자격증 사본, 전임의 경력증명서 원본 중 1부.

5) 기타 교수 초빙공고에서 제출도록 하는 사항

7. 지원서(서류포함) 접수

가. 접수기간 : 2013. 5. 29.(수) ~ 5. 31.(금),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나. 접수처 : 제주대학교 교무처 교무과

8. 기타사항

- 가. 제출된 지원 서류는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나. 제출 서류의 작성은 교수초빙공고에 게시된 지원서식 및 구비서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 다. 교수초빙지원서, 연구실적 목록, 연구실적목(공동)발표자 목록은 교수초빙공고에 게시된 서식을 내려 받아 활용하시기 바라며, 연구실적목 인정범위 등은 붙임 「제주대학교 전임교원신규채용 전형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람.
- 라. 경력(재직) 증명서는 교수초빙지원서에 작성한 임명기관장이 발급한 증명서 원본만 인정하므로 반드시 임명기관장이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마. 외국어로 작성된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지원자 본인이 날인 또는 서명한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함.
- 바. 2개 이상의 분야에 복수지원할 수 없음.
- 사.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본고 인사 관련규정에 의한.
- 아. 지원서식 및 구비서류 작성요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서류 및 연구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지원서식 및 구비서류 작성요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본고는 책임지지 아니함.
- 자. 지원서 허위기재 및 제출서류 위조는 임용 후에도 확인될 경우 임용을 취소함.
- 차. 심사결과는 해당자에게만 통지함.
-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고 교무과 ☎ (064)754-2013~5, Fax (064)755-6204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3. 5. 1.

제 주 대 학 교 총 장

http://www.jejunu.ac.kr
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교로 102

사설

변호사시험 연이은 선전을 축하하며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538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2009년 로스쿨 제도가 도입 이후 두번째로 치러진 시험으로 전국 25개 로스쿨 졸업자 2046명이 응시해 그 중 500여명 정도가 탈락한 것이다. 우리 대학은 35명이 응시하여 27명이 합격했다. 전국 평균 합격률 75.17%보다 높은 77.14%로 나름대로 우수한 성적을 올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1회 변호사시험에서는 32명이 응시하여 30명이 합격함으로써 25개 로스쿨 중 8위, 지역거점국립대 1위의 성적을 낸 것에 비하면 아쉬운 것이 사실이지만, 올해 평균 합격률이 작년보다 12% 이상 하락한 점을 감안한다면 그런대로 선전한 것이다. 특히 비수도권 대학에서는 합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우리 대학은 2회 연속 좋은 결과를 도출한 셈이다. 합격생들에게는 축하의 박수를, 최선을 다했으나 불합격에 그친 학생들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

덧붙여 이번 시험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대학 영문과, 법학부, 행정학과 졸업자 3명이 합격했다. 2009년에 이은 2010년 제2회 로스쿨 입시에서 우리 대학 학부생 출신들이 처음으로 합격하여 진학했는데 그 전원이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주시하시피 우리 대학은 전도민적 성원과 기대

속에 어렵게 로스쿨을 유지했다. 그러면서도 사실 간의 국가고시 실적 등 여러 가지 면에 비춰 과연 제주대학교 로스쿨이 제대로 정착될 것인지에 대해 세간의 우려와 의문이 없지 않았다. 작년과 올해의 성적은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이는 로스쿨 학생들의 노력과 교수들의 지도는 물론 대학본부 등 대학의 전 구성원들의 지원과 더불어 도민들의 지원에 힘입은 결과로 풀이된다. 자축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두 번 잘 했다고 앞으로도 잘 한다는 보장은 없다. 우리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향후 수년간 지속적인 긍정적 결과를 내어야만 그나마 전국 명문 로스쿨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로스쿨 학생과 교수, 대학본부는 이번 시험의 결과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 정진을 거듭해야 한다. 로스쿨 졸업생이나 재학생은 선배들의 실적에 만족해서는 안된다. 지금보다 두·세배의 노력을 경주해야만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교수와 대학본부에도 당부한다. 이번 결과가 운이 좋아 얻어진 반짝효과가 아니라 실력에 의한 것으로 평가받으려면 로스쿨 교수들은 학생지도와 교육에 더욱 신경을 써야만 하고, 대학본부도 교수와 학생들을 독려하고 지원해야만 한다.

놀이는 창조의 근원이며 저항의 원천

네덜란드의 문화사가 요한 호이징아는 『호모 루덴스(Homo Ludens)』라는 책을 저술했다. ‘놀이는 인간’이라는 뜻인데,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의미의 ‘호모 사피엔스’나 도구를 제작하는 인간이라는 뜻의 ‘호모 파베르’와 대별되는 의미를 가진다. 그는 이 책에서 문화는 이성보다는 놀이를 통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호이징아가 생각하는 ‘진정한’ 놀이는 귀족적 문화인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에게 근대의 ‘대중문화’ 확산은 ‘진정한’ 놀이의 상실에 다름 아니다. 그는 다양한 형태의 축제를 통해 드러났던 민중들의 저항적 문화의 역동성을 읽어내기에는 보수적이었으며 문화의 확산을 통한 대중의식의 성장을 제대로 인식하기에는 낭만주의에 경도되어 있었다.

호이징아의 문화에 대한 협소한 이해에도 불구하고 ‘호모 루덴스’가 우리에게 던져 주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대중문화의 확산은 근대적 시민의식의 성장을 가져오지만 노동과 여가를 분리하고 여가를 상품화하는 자본주의 문화는 놀이가 담고 있었던 창의성을 단순한 ‘소비행위’로 전락시켰다. 호이징아가 생각했던 ‘진정한’ 놀이가 모두가 놀이에 참여하고 그러한 참여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내는 그런 것이었다면 우리에게 놀이는 자본이 만들어 놓은 획일화된 상품을 화폐를 주고 소비하는 지극히 수동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놀이가 모이는 장을 축제라 한다면 그것은 비록 매

곤하게 잘 다음어진 기성의 ‘문화 상품’을 따라가지 못하지만, 그래서 서투르고 거칠지만 참여자들의 삶, 고통, 즐거움 등이 표현되는 공간이어야 한다. 전근대 시대 축제는 위계적이고 억압적인 질서에 의해 눌러 있던 민중의 불만을 해소하는 공간이었고 그 안에는 지배자들을 야유하고 조롱하는 비판의 정신이 담겨져 있었다. 대학의 축제가 최소한 대학인들이 느끼고 있는 시대의 문제들을 위트와 비판의 언어로 드러내는 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학의 축제는 문화의 소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침식해 들어오는 상품화된 문화를 ‘야유’하고 날것 그대로의 서투름을 무기로 일상에 안주하고 있는 우리들 의식을 불편하게 하는 뼈뺌하게 보기의 장인 것이다. 이것은 비판과 동시에 새로운 문화의 씨앗을 뿌리는 창조적인 실험이기도 하다.

유명 연예인의 공연을 보면서 열광하는 군중에게는 서로를 확인하고 연대감을 만들어 내는 ‘열정’(effervescence)이 없다. 이제 우리는 대학의 축제가 무언가를 시험하고 창조해 가는 순수한 아마추어리즘보다는 돈으로 보기 좋게 만들어진 상품 구매를 선호하는 장으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은지 진지하게 반성해 보아야 한다. 대학인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모든 것을 규격화하고 모든 것을 것을 화폐의 논리로 환원하는 ‘일차원적’ 사회의 ‘일차원적’ 인간이기를 거부해야 한다. 이것이 대학의 존립 이유다.

탐동바다에 빠진 여성 구한 ‘용감한 녀석들’

김민철·이동우·현준혁 씨

해양경찰 지난달 24일 표창

제주대 학생들이 밤을 헧디며 바다에 빠진 40대 여성을 구해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김민철·이동우·현준혁(지구해양과학과 1)씨가 주인공들이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23일 새벽 0시30분께 제주시 탐동 방파제 앞 계단에 앉아 지인과 대화를 하던 고모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다 중심을 잃고 바다에 빠지자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 고씨를 구조했다.

이들은 당시 탐동광장 농구대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다.

당시 사고현장에는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시민 20여 명이 있었으나 차가운 밤바다에 섣뜻 누구도 구조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김민철씨는 상의를 벗고 바다에 뛰어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과 함께 고씨를 구조했다.

이동우·현준혁씨는 구조된 고씨를 물으로 끌어올렸다.

이들에 의해구조된 고씨는 신체에 별이상 없이 무사히 귀가할 수 있었다.

해경은 “사고 시간대가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이라서 익수사고가 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임에도 이들 학생들의 용감한 행동으로 고귀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왼쪽부터 현준혁·김민철·이동우(지구해양과학과 1) 씨

밝혔다.

이에 해양경찰은 지난달 24일 이들

에게 인명을 구조한 공로로 표창장을 수여했다.

체육영재센터 개강… ‘글로벌 체육인재’ 양성

지난 4일 자대 세미나실에서

‘체육영재의 자제’ 특강도

제주대 체육영재센터(센터장 양명환)는 지난 4일 자연과학대학 세미나실에서 ‘2013년도 체육영재 개강식’ 행사를 가졌다.

센터는 이날 호서대 체육학과 박정근 교수를 초청해 ‘유능한 선수로 성장하기 위한 체육영재의 자제’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사)한국국경능력개발원장(KCDC)과 ㈜인터내셔널스포츠그룹(ISG)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박 교수는 강연을 통해 “유능한 선수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평균이상의 지능과 과제집착력 그리고 창의성 등의 내적속성과 외적환경의 적절한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체육영재센터가 지난 4일 자연과학대학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2013년도 체육영재 개강식' 행사에서 박정근 교수가 특강을 하고 있다.

특강에는 체육영재센터 연구원 및 지도자, 체육학부 학생, 체육영재 및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양명환(체육학부) 센터장은 개회사를 통해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을 통해서 운동능력에 편중된 영재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학습하며 실천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글로벌 체육인재를 양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윈드심포니, 7일 문예회관 대극장서 연주회 가져

강선영·김인에 학생 협연

매년 수준 높은 연주로 호평

제주대 윈드심포니(지휘 허대식 관현악전공 교수)는 7일 오후 7시 30분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제27회 정기 연주회를 가졌다.

이번 제27회 윈드심포니 정기연주회에서는 현재 음악학부 4학년에 재학중인 강선영(트롬본)·김인에(피아노전공)씨가 협연했다.

제주대 윈드심포니는 1981년 음악교육과가 개설되면서(1987년 음악학과로 개편, 2009년 음악학부 개편) 관악 전공학생들로 이뤄진 관악단이다.

한편 윈드심포니는 1987년 제1회 정기연주회를 시작으로 매년 정기연주회, 실내악의 밤, 제주국제관악제와 제주관악제에 참가하는 등 다양한 연주활동을 통해 내실 있는 연주력 향상과 정통적인 관악 레퍼토리 연주에 힘을 쓰고 있다.

2004년에는 아시아·태평양 관악제, 전국대학 심포닉 밴드 가을축제(2006~2007년)에도 참가한 바 있으며 수준 높은 연주로 청중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제주대신문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발행인·총장 허향진	편집인·주관 김동윤
편집국장 김명지	
우)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전화안내 064)754-2114
제주대신문 편집국 064)754-2277-9	제주대미디어&JUMP> news.jej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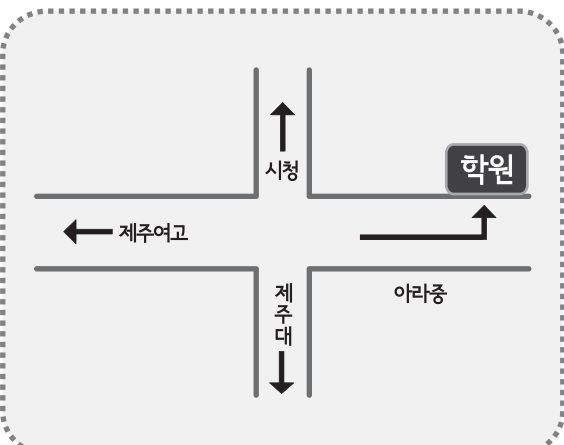
운전면허 제주대학교 발전후원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매일 학원 자체 운전면허 시험 실시

▶ 제주시 전지역 셔틀 운행 : 제주대←학원 셔틀 운행

▶ 주말교육가능

▶ 제주여고입구 건너편(다리) ↔학원셔틀버스 운행



제주시 아라2동 1320(제주여고 입구 동쪽)

☎ 755-9900

제주대학교는 개교 61돌을 기념하여 제주 사람들의 삶과 문화가 깃든 제주어의 전승과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하여 ‘2013 제주어 말하기 대회’를 엽니다. 제주어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사라져 가는 제주어 보전을 위한 발판을 다지는 장인 ‘제주어 말하기 대회’에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1. 대회 일정 및 주제

- 일시: 2013년 6월 8일(금) 오후 2시
- 장소: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2호관 1층 세미나실
- 주제: 자유

2. 참가 자격과 대회 방식

- 참가 자격: 대학생, 초·중·고등학생, 개인 또는 2인 1조
- ‘2007~2012 제주어 말하기 대회’ 대상·금상 입상자 제외
- 방 식: 말하기(연극적 요소 배제)
- 소요 시간: 5분 내외

3. 시상 내역

• 대학학부

- △대상(1명): 제주대학교총장 상장과 30만원 상당 상품
- △금상(1명): 제주대학교총장 상장과 20만원 상당 상품
- △은상(1명): 제주대학교총장 상장과 10만원 상당 상품
- △동상(3명): 제주대학교총장 상장과 5만원 상당 상품

• 학생부(초·중·고등학생)

- △대상(1명): 제주대학교총장 상장과 30만원 상당 상품
- △금상(1명): 제주대학교총장 상장과 20만원 상당 상품
- △은상(1명): 제주대학교총장 상장과 10만원 상당 상품
- △동상(3명): 제주대학교총장 상장과 5만원 상당 상품
- △지도교사상: 제주대학교 총장상과 부상

4. 참가 신청 접수

- 일시: 2013년 5월 2일~5월 30일
- 제출 서류: 참가 신청서
※참가 신청서는 제주대학교 누리집과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누리집에서 내려 받아서 작성하면 됨. (사진 포함)
- 접수 방법: 우편, 전자 우편, 모사 전송, 누리집, 직접 방문
△주소: 우편 번호 690-756 제주대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1호관 2층 국어문화원 제주어센터
△누리집: http://malgeul.jeju.ac.kr
△전자 우편: halla2712@jeju.ac.kr
△모사 전송: 064-726-2440
※우편 접수는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며, 모사 전송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전화 확인 바람.
- 문의: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제주어센터 064) 754-2712, 2738

제주대학교
개교 61돌 기념
2013
제주어 말하기 대회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제주어센터

“시인·소설가 등용문” 제33회 백록문학상 현상 공모

제주대신문이 창간 59주년을 맞이하여,

제33회 백록문학상을 현상공모합니다.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응모자격 :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학생

2. 응모분야 : 시(1인 5편 이상)
단편소설(1인 1편)

3. 접수마감일시 : 2013년 6월 10일(월) 18:00까지

4. 접수장소 : 언론미디어센터 행정실(취업전략본부 3층)

* 응모시 원본 파일을 담은 CD(DVD)와 출력 원고를 동시에 제출

5. 발표 : 제주대신문 896호(2013년 7월 3일 발행 예정)

6. 시상내역 : 시 당선작 - 상금 50만원 및 총장상
단편소설 당선작 - 상금 70만원 및 총장상

* 당선작이 없을 경우 가작을 선정할 수 있으며, 가작 상금은 당선 상금의 절반으로 함.

제주대신문

“저만의 스펙 ‘제대로’ 쌓고 있어요”... 대학생 강연·축제 기획

인터뷰 '제대로' 공동대표 성윤석씨

대학문화와 취업 함께 고민
10월 '유니브엑스포' 열 계획

섬이라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타 지역의 대학문화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하고 이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장이 없다는 것이 많은 제주도 대학생들의 푸념이다. 사실 제주지역 대학생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 토익에 매몰된 것은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이다. '대학생 강연기획가' 성윤석(제대로 공동대표 사회학과 4)씨는 “제주도 대학생들이 외부와 교류하는 것이 없다면 보나 자꾸 틀 안에 갇히고 있다”며 대학에서 강연을 열어 제주 대학생들에게 꿈꾸기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성윤석씨가 만든 '제대로' (공동대표 전호광)는 '제주도 대학생들 무대

로'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무대로 올리겠다는 것은 사실 지금까지 취업문제 뿐만 아니라 대학문화에 있어서도 제주대 학생들이 소외돼 있었다는 의미다. 그는 “제주 학생들은 더 넓은 창을 보지 못하고 남들이 하는 것을 계속 따라하게 됐다”며 제주만의 새로운 대학문화를 만드는데도 많이 고민하고 있다. 주위 친구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어 시작했지만 그는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통해 자신이 더 많이 배우고 있다고 말한다. “내 시야가 넓어지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시야를 넓어지게 고민하다보니 점점 ‘할 게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 혼자 커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성장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대로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은 두 달 남짓. 이제 첫발을 디딘 셈이다. 성윤석씨는 학생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첫 번째 방법으로 강연을 택했다. 본인은 물론 '책쟁이' 김종오(행정학과 4)씨 등을 무대에 세우며 학생들과 소통하고 있다. 강연자와 청중인 학생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함께 생각하면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대로'는 창조적인 대학생·대학문화를 고민하는 학생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어서 학생들로부터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물론 주위에서 이상하게 보는 시선도 있다. 봉사활동 시간 쌓기, 어학공부 등 스펙 쌓을 시간도 부족한 시기에 '딴짓'을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특히 성씨는 졸업을 앞둔 상황에서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어 주위에서 걱정을 했다고 한다.

“주위는 물론이고 스스로도 취업에 대한 걱정은 들죠. 사실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지만 유예했다. 내 장점

은 추진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스펙’만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역량을 발전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후원을 받기 위해 제안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등의 활동이 결국 사회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을 통해 준비하고 사회로 진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성윤석씨는 오늘도 총괄무진이다. 전국 대학문화 축제인 '유니브 엑스포'를 제주에서 열기 위해서다. 유니브 엑스포는 전국의 대학생들 박람회로서 올해로 4회 째를 맞이하고 있다. 연합종아리나 기업프로그램으로 대표되는 대외활동, 강연 및 공연, 이벤트, 취업과 관련된 이미지컨설팅이나 멘토링 등을 담아낸 대학생들의 축제이다. 오는 10월에 유니브 엑스포를 제주에서 열기로 했다. 그에 앞서 5월 대중제 기간 동안 미니 대회를 열어 학생들에게 미리 선보일 계획이라고 한다.



강연을 하는 '제대로' 공동대표 성윤석씨.

“제대로의 궁극적인 목표는 제주 대학생들이 취업하는 대학문화는 같이 하자는 거죠. 함께 변화하면서 시야를 넓혔으면 합니다.” 김명지 기자

봉우리봉사단, 소외계층 봉사활동 펼쳐



제주대 직원으로 구성된 봉우리봉사단이 지난달 28일 용담1길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제주대 봉우리봉사단(회장 정상기 시설과 기계팀장)은 지난달 28일 제주시 용담1길의 독거 할머니 집에 서 도배·페인트도색·전기수리·청소 등 봉사활동을 벌였다.

봉우리봉사단은 혼자사는 노인, 손자와 함께 사는 할아버지 및 할머니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과 갑보디

아 오지마를 불우아동 구충제 보급 사업 등을 위해 지난달 창립했다.

봉사단은 제주대 직원 25명으로 구성됐으며 매월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봉사단에는 특히 시설과 직원들이 분야별로 대거 참여해 어려운 이웃의 주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해외시장 개척한다

지난달 24일 중기센터서
어업회사법인과 협약도

제주대학교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단장 이용안 교수)은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JSBC 분부장 고자명)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지역 수출 증대 △무역전문인력 부족 및 중소기업 해외시장 확보 어려움 해소 △해외시장개척 △무역전문인력 조기양성 등에 협력기로 했다.

또 최근 어업회사법인인 ㈜오션스타(대표 김창범)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GTEP 사업단은 30일 중국 광저우에서 열리는 국제무역종합박람회 'China Import & Export Fair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은 지난달 24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중소기업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5.5)'에 협력업체인 ㈜태림상사와 함께 참가한다.

이어 6일에는 상하이에서 열리는 상하이 국제식품박람회 'SIAL CHINA 2013'에 협력업체인 ㈜진국내추출, ㈜제키스와 함께 참가했다.

한편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이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 참가하는 등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일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상호 협력기로

국제교류 학술활동 협력

제주대는 11일 제주대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우상)과 국제교류 분야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공공의 교, 국제교류 관련 학술활동과 인력양성 및 제반 프로그램 운영 △기관 및 소속 구성원의 국제교류 역량 강화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협력기로 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해외 한국학 진흥과 한국어 보급, 문화예술 및 인적 교류를 통해 한국의 문화를 전파하고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도모하기 위해 1991년 설립된 외교통상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이다.

또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오는 2015년서귀포시 혁신도시에 기관을 이전할 예정이다.

안영일씨 8일 문화광장 강연

'자기답게 살자' 주제로

'제주대문화광장'은 8일 오후 2시 아라뮤즈홀에서 DCG(Dream Challenge Group) 대표인 안영일씨를 초청해 '깊이있게 놀자, 대담하게 하자, 자기답게 살자'라는 주제로 강연을 갖는다.

현재 Zimly 홍보팀장, 프레지 수석디자이너, 라디오 동거남쇼 진행자를 맡고 있는 안영일 대표는 2005년 한아세안청소년교류 총회 의장, APEC 청소년광장 외국인 참가자 관리팀장, 2007~2009년 한중일 국가 간 청소년 교류 대표 등

을 지냈다.

그는 2008년 한국 IBM 퇴사 후 드림 챌린지 그룹을 설립해 일본 수출용 뮤지컬 사업을 일으켰지만 파산과 재기를 반복하는 등 다채로운 인생 경험을 쌓아왔다. 최근에는 프리지 제작과 교육으로 수익을 내며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 '제주대문화광장'에서는 깊이, 대담함, 자기다움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가 그의 삶을 통해 어떻게 구현됐는지, 과연 오늘 이 현재를 살아가는 대학생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지를 이야기한다.

여성 과학기술인 초청 특강 연다

WISET 제주지역센터

제주대 WISET제주지역센터(센터장 도양희)는 오는 6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여성 과학기술인 초청 특강'을 실시한다.

이번 특강은 이공계 여대생들에게 다양한 이공계 분야를 소개하고, 여성과학기술인 역할 모델을 제시해 전공 분야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WISET 제주지역센터는 이날 제주시 노형동 (주)NXC 사옥에서 최윤아 (주)NXCL 대표이사의 특강을 진행했다.

한편 WISET 제주지역센터는

제주대 WISE프로그램 제주지역센터로서 제주지역 여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꿈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또 2012년부터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사업으로 확대돼 운영되고 있다.

한편 WISET 제주지역센터는 지난 21일부터 7일간 제주대 이공계 여대생이 직접 도내 중학교를 찾아가 실험교육을 하는 '찾아가는 실험실'을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고산중, 서귀포여중, 성산중, 제주여중, 제주동여자중에서 공학·물리·화학 등을 주제로 운영됐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12월까지 진행된다.

사람들

오홍식(과학교육과) 교수 저술상 수상

양진건(교육학과) 교수 시집 출간

오홍식(과학교육과) 교수가 지난달 30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환경생태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논문발표회에서 저술상을 수상했다.

오 교수는 지난해 『생태학』(교보문고), 『한국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적색자료』(자연과 생태) 등을 집필했다.



양진건(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수가 시집 『유배, 이 황홀한』을 펴냈다.

『대담한 정신』, 『귀한 매혹』에 이어 세 번째로 펴낸 이번 시집은 삶과 유배에 대한 시인의 예리한 관찰을 담고 있다.



나이가 들면서 더욱 힘을 다했던 추사 김정희를 닮아가는 자신을 황홀한 유배인으로 자처하며 유배길 위에서, 유배지에서, 그리고 일상 속에서 느껴지는 유배의 소회를 담담한 목소리로 풀어냈다.



백지숙(건축학과 석사과정),

강동희(학부 4) 우수발표논문상 수상

백지숙(건축학부 석사과정 지도교수 이용규), 강동희(건축학부 4)씨가 지난달 25일 대구 계명대에서 열린 '한국지구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했다.



논문 제목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거주자 참여디자인 방법과 도구에 관한 연구'다.



김수희(가정관리학과 박사과정 지도교수 김봉애)씨가 지난 2일 인천 포스코 글로벌 R&D센터에서 열린 '2013년도 대한건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했다.



논문제목은 '골프장 부지 내 주거시설의 계획

특성에 관한 연구'다.

강언식(행정학과 졸업) 동문

서귀포경찰서장에 발령

강언식(51) 동문이 최근 단행된 경찰청 인사에서 서귀포경찰서장에 발령됐다.

행정학과를 졸업한 강언식 서장은 1991년 간부후보 39기로 경찰에 입문해 제주청 해안경비단 902대대장, 서울청 경호계장을 거쳐 2011년 총경으로 승진했다.

이후 강언식 동문은 충북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 경무과 지도관을 거쳤다.



홍영호(해양경찰학과) 동문

해양경찰간부 후보시험에 합격

홍영호(31·해양산업경찰학과 졸업)씨가 올해 실시한 62기 해양경찰간부 후보 시험에 합격했다.

홍씨는 필기시험과 체력 및 신체검사, 인·적성 검사,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했다.

홍씨는 경찰교육원에서 1년간 교육을 받은 후 경위로 임용된다.

그는 “해의 전공연수 등 학교지원이 합격에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 선진 해양경찰을 이끄는 주역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윤소라 이사 'CEO에게 듣는다' 특강

윤소라 (주)유아이 대표이사가 오는 26일 오후 2시 공과대학 4호관 강당에서 '나를 만들자'란 주제로 'CEO에게 듣는다' 8주차 특강을 진행한다.

윤 대표는 제주출신 여성 CEO로서 일본문화여자대를 졸업했다. 한국선구무역 및 동도물산에서 의료 및 LCD소재 관련 영업 활동을 한 후 2006년부터 전자부품



테이프 및 광학필름 전문제조회사인 (주)유아이를 창업해 연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중견기업을 이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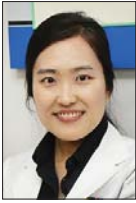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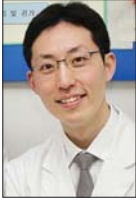
류재성·전봉희·김상희 전공의

우수 구연상·포스터상 수상

류재성·전봉희·김상희(정신건강의학과·사진 순서대로) 제주대학교병원 전공의가 지난달 24일 개최된 2013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 구연상 및 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했다.

류재성 전공의는 '노인 아증후군적 우울증 환자의 삶의 질 저하', 전봉희 전공의는 'CADASIL 환자에서의 임상적 특징 - 신경정신학적 증상 측면에서' 주제 발표를 해 우수 구연상을 각각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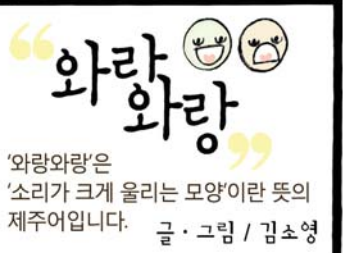
김상희 전공의는 '제주 지역의 우울증 유병율과 관련요인 및 우울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포스터 발표가 연구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했다.



김성곤 전공의 학술상 수상

김성곤(제주대학교병원 안과) 전공의가 지난 6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춘계 대한안과학회 제109회 학술대회에서 학술상을 수상했다. 논문 주제는 '각막 전부 실전에 작은 공기 방울 침투를 이용하여 염료를 주입하는 빠른 각막문신 방법'이다.

정진호 제주대학교병원 안과 과장은 “김 전공의는 제주에서 유일한 안과 전공의”라며 “응급환자 진료로 보느라 바쁜 가운데서도 연구를 열심히 해 좋은 결과를 얻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2012년 한국대학신문이 조사한 대학생 평균 독서량

한 달 2.2권

5년 전과 비교해 무려 27.3% 감소

현재 우리의 모습



취업을 **Job**아라

제주이전기업 탐방 <9> / (주)NXC

해외 매출액 8천억... 인력 80% 제주출신 채용

넥슨의 지주회사인 엔엑스씨(이하 NXC·대표 김정주)가 제주 본사 이전 4년 만에 제주시 노형동 신사옥에 입주했다.

넥슨이 세계적인 게임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이전 외적 팽창이 아닌 질적 향상을 염두에 둔 사업 구조로 변신이 한창이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지난 2009년 3월 제주를 본거지로 설정하고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를 옮겼다. 제주시 노형동 일대 건물에서 임시 형태로 본사를 꾸리다가, 만 4년이 흘러 자체 사옥을 건립했다.

제주 신사옥 'NXC센터' 시대 돌입

NXC센터는 제주시 노형동에 전체 면적 5945㎡에 지상 4층, 지하 1층으로 구성돼 있으며, NXC와 넥슨네트웍스 제주 본사 직원 3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NXC센터는 오피스, 바깥, 바다, 볼 등 제주의 상징들을 건물 곳곳에 형상화했으며, 회의실을 비롯한 부대 공간의 이름도 제주의 방언을 쓰거나 지형을 따서 지었다. 예를 들어 카페테리아는 '섬팡', 창고는 '고팡'이라고 부르고, 회의실에는 '사라', '산새미', '새별' 등의 이름이 붙어있다. 이곳에는 체력단련장과 북카페, 텃밭, 게임룸 등 편의시설이다, 사육실도 갖췄다.

NXC는 본사를 제주로 이전한 이래 넥슨네트웍스 등의 채용 인력 80%를 제주 출신으로 뽑았다. NXC의 지역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운영하는 문화카페 '닐모리동동'의 수익금은 제주지역 문화다양성지원 기금 등으로 내놓고 있다. 닐모리동동은 '닐모리(내일 모레)'와 '동동(기다리는 모습)'이 결합된 제주방언으로, 제주도의 문화가 널리 전파되는 날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천환경과 자연주의를 본연의 콘셉트로 잡았고, 여기에 문화라는 가치를 심어넣었다. 천장은 오희, 조명은 해녀들이 사용하던 테락, 오픈키친은 조가와 돌담을 형상화했고, 곳곳엔 제주 사투리가 섞여 있다. 제주를 현대적으로 표현한 이 공간에서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린다.

넥슨은 또한 제주에서 다빈치를 길러내는 제주메세나운동에 동참, 지역문화예술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한다. NXC는 7월 NXC센터 대회의실에서 설문대어린이도서관(관장 임기수)과 메세나 결연식을 갖고 도서관과 공동으로 어린이 대상 독서·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키로 했다. NXC는 설문대어린이도서관이 추천하는 '농촌지역 유치원 책읽어주기' 프로그램과 지역주민 대상 문화예술강좌 진행에 따른 재정적·비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설문대도서관은 NXC의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 문화체험활동과 도서 대여 등을 통해 기업과 문화예술단체가 상호 교류하는 메세나운동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넥슨컴퓨터박물관이 신사옥 옆



지난 3월 문을 연 NXC센터는 제주시 한라수목원 인근에 연면적 5945㎡에 지상 4층, 지하 1층으로 구성됐으며, NXC와 넥슨네트웍스 제주 본사 직원 3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위쪽 사진은 NXC센터 전경, 아래 사진은 북카페이다.

닐모리동동·제주메세나운동 등 문화활동지원 팔걸었다

오는 7월 사회공헌 일환으로 넥슨컴퓨터박물관 개관

에 오는 7월 개관한다. 박물관은 넥슨의 숙원사업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 박물관은 컴퓨터와 게임의 역사를 조망해 미래를 상상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 2010년 박물관 설립계획이 만들어진 이래, 초창기 컴퓨터인 애플 및 매킨토시 오트세이 등 역사적인 PC와 게임기들을 모으고 있으며, 관련 서적과 잡지들을 수집하고 있다.

한해 해외 매출만 8천억원, 게임 한류 위상 강화

NXC는 넥슨의 지주회사이다. 1994년 설립 이래, 올해로 창립 18주년을 맞은 넥슨은 대한민국 인터넷 산업 발전과 그 역사를 함께 해왔다. 1996년 세계 최초의 그래픽 온라인 게임 '바람의 나라'를 선보였으며, 이후 크레이지아케이드 비엔비, 메이플스토리, 카트라이더, 피파온라인, 마비노기 등 히트 온라인 게임을 내 놓으며 인터넷 문화산업 발전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 같은 성장

은 게임성과 시장성을 겸비한 탄탄한 개발력과 향상 '최초'를 추구하고 실현해 낸 넥슨의 창조성과 공격적인 해외시장 확대 전략으로 가능했다.

넥슨은 2002년 일본, 2005년 미국, 2007년 유럽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며 일찌감치 해외 시장 개척에 앞장서 왔다. 현재 넥슨은 일본, 중국, 대만 등의 동아시아 3국을 비롯해 태국,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와 미국, 캐나다 등 북미지역과 유럽, 남미 등 전 세계 104개국이라는 광범위한 시장에 진출해 50여개 이상의 게임 타이틀을 서비스 중이며, 현재 13억 명이 넘는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2011년 기준 한 해 동안 넥슨이 해외시장에서 벌어들인 매출액은 약 8천억원에 이른 다. 이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2008년과 2009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선정하는 해외 수출 유공자 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2011 대한민국 콘텐츠 어워드에서 해외진출유공자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넥슨은 지난해 1분기 전체 매출의 67%인 215억엔(한화 3062억원)을 해외에서 벌어들였다. 중국이 전체 매출의 약 50%를 차지한다. 일본 시장 내에서는 넥슨이 출시한 게임들이 좋은 성과를 보이며 전년 동기 대비 17%의 매출 성장을 이끌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최근 카트라이더 서비스를 실시했으며, 대만과 홍콩에서는 사이퍼즈 퍼블리싱 계약을 맺는 등 넥슨은 한국을 넘어 중국, 일본, 북미 및 유럽 등 전 세계 시장에서 고른 성과를 보이고 있다.

넥슨의 해외 사업 성공에는 시장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 뛰어난 콘텐츠 로컬라이징, 시장에 맞는 선진화된 과금 시스템 개발, 게임 이용자에게 만족을 주는 게임 운영 노하우 등이 뒷받침됐다. 지난해 넥슨은 다양한 신작을 선보이며, 넥슨의 개발력과 탄탄한 라인업을 선보이며 업계 1위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드러냈다. 특히 멀티플랫폼 기반 게임 출시, 소셜네트워크 게임사업 본격화, 해외 시장에서의 선전은 글로벌 넥슨의 브랜드 파워를 입증하기에 충분했다.

멀티플랫폼 게임 통한 브랜드 파워 강화

2011년 국내 게임 시장 규모는 9조1천억원 정도로, 수출액은 22억1100만 달러에 이른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게임의 수출 규모인 20억 달러를 넘어서는 매출액은 중형 자동차 8만대, 최신형 TV 100만대 이상의 수출과 맞먹는 규모라고 평가할 정도다.

넥슨은 날로 급변하는 인터넷 문화에 맞춰 멀티플랫폼(웹+스마트폰+태블릿PC) 게임 개발에 힘을 기울여 자사의 게임을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다양한 모바일 기기용으로 선보이고 있다. 지난 3월 선보인 레이스게임 카트라이더의 스마트폰 버전인 카트라이더 러쉬는 현재 전 세계 누적 다운로드 700만 건을 기록하고 있다.

소셜네트워크게임(SNG) 개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8월 페이스북을 플랫폼으로 한 메이플스토리 어드벤처의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며 소셜네트워크게임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했다. 메이플스토리 어드벤처는 서비스 개시 2주 만에 월간 활동 이용자 100만명을 돌파했으며 최대 활동 이용자가 300만명을 기록했다. 조작법과 친근한 그래픽 등 원작의 게임성을 살렸다는 평가와 함께 국내 소셜네트워크게임 중 단기간에 가장 빠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강태원(NXC 브랜드홍보본부)씨는 "19년 전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부터 시작된 넥슨의 디지털 사업은 온라인 게임 개발 및 서비스로 외연을 넓혔다"면서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의 제주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이뤄졌으며, 제주사회와 공존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사람에 대한 배려·이해를 하는 인재 선호

인터뷰 김정현 사업기획본부장



▶NXC나 넥슨 그룹 만의 독특하고 창의적인 기업문화에 대해 소개해 달라.

“NXC라는 이름을 들으면 생소하겠지만, NXC는 국내 최고의 온라인 게임 회사인 넥슨의 지주회사이다. 게임이라는 문화산업을 통해 성장해 온 기업인 만큼 자유분방한 개성들과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소중히 하고 있다. 회사 내에서 다양한 문화행사를 기획하거나, 참여하기도 하고, 회사 공간에서 북카페, 놀이방 등 문화적 향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넥슨 문화 포럼이라고 직원들이 문화적 역량을 기르는 기회를 부여하기도 하고, 닐모리동동처럼 사회공헌도 문화와 접목하고 있다. 창의성이란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문화 다양성과 이러한 문화를 폭넓게 수용하는 문화적 개방성에서 창출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NXC나 넥슨 그룹이 바라는 인재상은,

“넥슨은 세계 최초의 온라인 그래픽 게임인 '바람의 나라'를 개발하고 성공한 기업이다. 한국에서 볼모지였던 게임 산업에 도전한 도전정신,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킨 창의성,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 장를

이전 하

울함할

제주는 지식·문화산업이 꽃피울 수 있는 경쟁력 갖춰

이, 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체험 통해 문화 이해와 표현 능력 키워야

동

문화에

대한 이

해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따라서

도전정신, 창의성,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인재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여기

에 하나를 더 보태자면, 결국 이 모든 것

은 사람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사람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할 줄 아

는 인재

를 선호한다.”

▶문화카페 닐모리동동을 통한 지역문

화지원기금 마련과 어린이도서관과의

메세나 결연, 넥슨컴퓨터박물관 등의 다

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다. 넥슨의 사회공헌에 대한 철학이 있

다면,

“과거 만화가 불량스러운 문화로 여

겨지던, 만화를 불태우고 만화방을 폐쇄

하던 시절이 있었다고 한다. 세월이 흘

려 최근에는 애니메이션 산업으로 고부

가가지 문화산업으로 이해되고 있다. 하

지만 게임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거 같다.

우리는 게임을 다양한 문화가 조화를

게 결합된 산업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조화로운 문화 감수성이 사람들

에게는 행복을, 국가에는 경쟁력을 가져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화는 개개인

의 개성과 잠재력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표출하고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

다.

그런 점에서 다양한 계층과 지역의

사람들이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적 감수



“자신이 아는 것, 생각하는

것만큼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누가 끝까지 목표를

바라보고 자신을 믿느냐에 따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삼질하지 않는 삼질정신

박 신 영 / 폴앤마크 콘텐츠사업팀 소장

광고, 마케팅, 컨설팅 등 다양한 공모전에서 23관왕을 했다. 내가 쓴 '삼질정신'이라는 책은 대학교에서 부교재로 쓰이기도 한다. 한동대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해 소위 지방대 출신이다. 학교 다닐 적에 '공모전에 도전하고 싶다'고 하니가 선배들이 '말 안 해도 알아. 너의 위치가 아니잖아, 원래 안 되는거야'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의 모습을 그런다. 그리고 타인이 그러는 나의 모습에 수긍하기는 나를 발견하곤 한다. 그 판단이 좋고 긍정적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다. 어떻게 하면 남들이 그려주는 내가 아닌, 스스로 그러는 나의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발상하는 청춘이 되자

아는 것을 실천해야 비로소 힘이 된다

우리의 뇌는 5%의 의식과 95%의 무의식으로 판단한다. 즉 자신이 아는 것, 생각하는 것만큼 상상할 수 있다. 누구나 한계에 부딪칠 수 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누가 끝까지 그 목표를 바라보고 자신을 믿을 수 있느냐에 따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사람의 생각 유형에는 연역과 귀납, 발상이 있다. 결론을 정해두고 논리적으로 따지거나 하는 연역의 방법과 귀납의 방법으로 생각을 한다면 부정적인 결론을 극복할 수 없다. 현재 상황에 대해 항상 발상해야 한다. '아, 그런 것 모르겠고, 시끄럽고, 어떻게 하면 지금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발상을 통해 그 한계를 넘어서는 전략적인 삼질을 할 수 있다.

실천하는 사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한 선배는 군생활을 하는 동안 그림을 너무 그리고 싶어 우유팩을 매일 찢고 거기에 그림을 그렸다. 전역할 때까지 계속 그림을 그렸다. 그림을 모아둔 덕분에 '다른 작품에는

없는 스토리가 있다'는 평을 받으며 산업대전에서 큰 상을 받았다. 우유팩에 그린 그림은 별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매일매일 많은 양을 그리다보니 작품이 됐다. '해서 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라. 보잘 것 없어 보이는 행동이 매일 쌓이고 나면 어마어마한 것이 된다. 삼질의 절대량을 채우는 실천적인 습관이 필요하다.

실수를 두려워 마라

학생들이 발표현장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다. '저의 부족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서없는 발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별거 아닌데 편하게 들어 주세요' 들은 사람 입장에서선 이미 부족한 발표, 두서없는 발표, 별 거 아닌 발표가 돼버린다. 발표를 잘 하는 사람이나 말을 잘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학습이 잘 되도록 말하는 것이다.

학습이 가장 쉽고 완벽해지는 4단계가 있다. 버니스 매카시 박사가 개발한 4MAT 시

스템이다. 첫째는 왜(Why)이다. 왜? 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은 주로, '이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무엇(What)은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 중 어떤 것들이 사실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다음은 어떻게(How)이다. 이들은 이론을 테스트하며 배우는 타입이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됐?'라는 질문을 던진다. 다음으로 그래서 뭘(So What) 유형으로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며, 숨겨진 가능성을 찾는 사람들이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그 가능성을 반영하여, 자신을 발견한다. '어디에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자주 던지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래서 뭘' 유형이 돼야 한다.

'NO'가 아닌 'YES'의 정신으로

보통 학생들이 발표할 때는 '제가 오늘 무엇을 발표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는 평범한 말을 한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의 입장에서선 '내가 너를 왜 뽑아야 하

는데' 그 이유를 직접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리포트를 쓰거나 누군가를 설득할 때도 머뭇거리지 말고 직접 본론을 먼저 말해야 한다. '많은 경쟁자 중에 왜 저를 뽑아야 할까요'부터 만약 '저를 뽑는다면'이라고 만약을 강조하면 각인이 다르다. 결국 뽑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쉽지 않다. 머리로만 알더라도 행동으로 옮기는 건 어렵다. 나도 마찬가지다. 다만 남들과 다른 것이 'YES'의 정신이었다. 익숙하지 않은 곳은 언제나 무섭고 떨린다.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할 말이 없기 마련이다. 강연 제안이 들어올 때마다 모두 준비가 잘 된 건 아니었다. 하겠다는 대답을 먼저 내놓고 강연을 준비했다. 어색하지만 했던 강연이 열 번, 백 번이 되니 내 것이 됐다.

인생은 누가 먼저 '제가 하겠습니까'를 외쳐서 어색한 영역을 익숙한 영역으로 만드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NO'가 아닌 'YES'의 정신으로 하루를 생활해야 한다.

혈연의식 넘어선 ‘시민적 제주인’ 형성해야

학술기고 ‘시민적’(civic) 제주인



김은석
사회교육전문교수

1. 제주인, 제주문화의 등장

최근 제주 사회의 담론체계에서 ‘제주인’은 이념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늘 그 중심에 놓인다. 제주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제주인으로 살아가며, 흔적을 물려준다는 것은 곧 그것이 긍정적이며 부정적이라는 실 인신의 틀이 되어왔다.

제주문화, 제주인이라는 용어가 정확히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도로교통망의 형성, 광범위한 커뮤니케이션 망의 구축, 의무교육의 실시 등 객관적 조건들이 마련되어가던 시기에 이를 용어의 수용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타자와 제주인을 구분하는 일련의 일들을 정리하면 몇 가지가 있다.

첫째, 1946년 도(道) 승격과 20세기 후반 민선자치의 출현을 꼽을 수 있다. 과거 전라남도에도 속해 있던 제주군은 1946년에 전라남도에서 분리, 본격적인 독립된 도 단위로 승격된다. 제주도 승격은 이후 ‘제주인=제주도민’으로 이어지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특정한 정치공동체에 속한다는 의식은 주민의 자기 위치 확인에 필수적이었

다. 개인적으로 어느 정치공동체에 속하는지, 어떤 인간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규칙과 문화적 틀 속에서 살게 되는지가 상당부분 이로써 정해지기 때문이다. 이 때 제주도 노래, 제주도 기(旗)와 각종 상징물은 근현대적 ‘제주인’을 자각시키기 위한 결과물이다. 그것은 제주인을 관념적으로나마 ‘우리’라는 연대감으로 결속시켜 줄 새로운 상징과 수사의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전통적인 덕목인 수불음과 같은 상부상조의 미덕이 주목을 받게 된다.

둘째, 유구한 전통의 공동체가 강조되면서 전통에 대한 가치가 재삼 중시되었다. 예컨대 제주도청 기관지인 『제주도』의 경우 특집을 통해 제주인의 전설, 신화, 의식주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가령 “제주도 명물의 재발견”(1973), “제주도의 의식, 주”(1975), “제주도전통문화의 재정립”(1977), “제주인·제주도 정신”(1979)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제주인이 지향해야 할 실천운동과 이념

적 지표로서 ‘삼무정신’, ‘조낭정신’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보다 적극적으로 세계화, 지방화 시대의 전략으로 100만 제주인의 개념범주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통합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제시된 바 있다.

셋째, 지역공동체 정신의 강조이다. 20세기 후반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제주인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여기서 지방정부는 주민을 하나로 묶는 시도들이 나타났다. 제주사정립추진위원회의 활동도 제주인의 뿌리찾기 작업과 아울러 제주의 지역 독자성을 확신하고 도민의 연대감을 마련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20세기 중반 이후 나타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놓고 볼 때 지금까지 논의의 핵심은 혈연적 제주인이었다. 그것은 도민들을 하나로 묶어줌으로써 하나의 공동체를 창출하는 문화적 기제로 작용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혈연적 의미의 제주인이라는 자부심과 동일성이 사회적 동력으로 작동하기에는 오늘날 이념, 계층, 세대간의 차이는 너무도 크다. 구호가 만들어내는 ‘상상의 공동체’에서 ‘사회통합’, ‘회합’이 미덕으로 자리 잡던 때가 지났다고 판단된다. 제주인이 통일성을 강조하는 혈연공동체의 인식에 머무는 한, 다양성의 공존과 연대에 기초한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발전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제주인과 제주문화는 ‘혈연적 제주인’으로 구성돼

공유적·매개적인 ‘시민적 제주인’으로 바뀌어야 할 때

발상 전환 통해 제도적·문화적 장치를 마련해야

아웃사이더인 내게 우리의 조국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외친 버지니아 울프의 낯선 반문을 진지하게 경청해야 한다. 그것은 한 집단의 정체성의 억압을 뚫고 나온 타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여성적 주체의 외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울프의 항변은 여성, 외국인 노동자, 농어촌 주민 등과 같은 주변화된 타자를 배제할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서 주변화된 제주인의 항변이기도 한 것이다. 21세기 제주인은 유기체적 성격을 벗어나 자기 자신을 타자로 인식하는 동시에 타자를 동등한 제주인, 즉 시민으로 인정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다.



2011년 제주도의회가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개최한 해군기지 관련 행사이다. 어울림마당처럼 시민적 제주인을 위해 공적 사용이 가능할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2. 혈연적 제주인과 시민적 제주인

사실 현실을 인식하는 틀이 바뀔 때 실천의 방식이 달라진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집단을 어떻게 부르나에 따라 실천의 지향이 달라진다고 한다면 결론에 대신해서 ‘혈연적’(ethnic) 제주인’에 대비되는 ‘시민적’(civic) 제주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경쟁과 이해갈등으로부터 상생의 새로운 규범과 통합시스템을 찾아내야 하는 오늘날 ‘시민적’이라 함은 무엇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비규정적 특성을 갖는, 그러면서 다양한 주제적 입장이 조화되고 언제든 지 가변적일 수 있는 그 자체의 임시적인 아이덴티티를 갖는 주민을 뜻한다. 이런 점

칸트는 이성의 공적 사용이 철학자들의 수사가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서 가능하다고 한다. 그것은 사익에도 국익에도 갇히지 않는다. 예를 들어 꽃차밭을 훼손하여 골프장이나 리조트를 건설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다. 그것은 개인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그렇게 생각한 것이다. 그렇다고 그 판단의 근거가 국익에 의한 것도 아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 이주민에 대한 인권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단지 나에게 좋으니가 아니면 국익에 부합하니까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 모두는 이성의 공적 사용, 즉 공공성(offentlichkeit)에 다름 아니다. 그것은 특정한 의사소통을 하는 한정되고 닫혀 있는 ‘공동체’가 아니다. 그것의 특징은 바깥으로 열려있다는 것, 즉 그 범위에서 최종적인 한계를 상정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분석적 차원에서 그것은 국가적/지구적 공공성, 직능적/사회적 공공성, 중앙/지방의 공공성 구분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모두는 하나의 근본원리 즉 이성의 공적 사용에 근거하고 그런 전체 위에서 각 영역 간의 바람직한 소통과 교류가 가능하다.

따라서 ‘시민적 제주인’ 개념은 이성의 공적 사용이 가능할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장치가 마련되고, 이를 가능한 수준에서 현실화시키며 현실화된 제도를 부단히 개선해 가는 과정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런 발상은 ‘혈연적 제주인’을 뛰어넘을 때 가능하다. 물론 제주주민들에게 혈연적 동일성에 근거한 태도는 상당한 정도의 영감과 연대를 제공해 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것의 한계를 고려한다면 혈연의식을 넘어선 시민적 제주인을 형성하는 태도가 미래지향적인 자세가 아닌가 한다. 이를 위해 문화적인 다성성과 환경, 민주적이고 시민적인 제주인 정체성의 형성과 제도화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권하고 싶은 책

신화야말로 인류 최고의 자산

제주를 일러 ‘신들의 고향’이라고 부른다. 이 섬에 태어나고 바람 속에서 자라며 예술혼을 담금질해온 예술가들이라면 누구나 제주의 만신전과 그 속에 스미어 있는 신들의 이야기에 심취한다. 그것은 단지 신화 속의 판타스틱한 영웅담을 모사하고 재현하기 위해 서가 아니다. 흔히 모든 예술의 밑바탕은 문학이라고 한다. 문학의 밑바탕은 다름 아닌 신화다. 모든 예술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작가는 매체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한다. 모든 이야기의 원천은 인류가 만들어낸 최고의 발명품 신화다. 신화에서 문학과 예술이 탄생했다. 요즘 새롭게 주목받는 스토리텔링기법 또한 신화에 담긴 이야기의 작동원리를 활용한 것이다.

굿판과 무대를 전전하는 틈틈이 시나리오작업을 하던 중 인연을 맺게 된 이로부터 “자네는 신화이론을 공부하고 있으니 영화도 낱칠지 않을 거야.”라는 말을 들었었다. 제주대근거리 반대운동으로 세 번의 투옥과 70일에 이르는 살인죄 단식을 여러 차례 감행했던 영화평론가 양윤모 선생은 그 말에 덧붙여 책 한 권을 내게 선물했다. 그 책이 바로 ‘영화와 신화(을유문화사)’다.

헨리웃의 작가이며 대본감수자인 스텐튼 보이탈라의 역작인 이 책은 그의 동료 크리스토퍼 보글러의 ‘신화, 영웅 그리고 시나리오 쓰기’처럼 신화의 작동원리를 시나리오 창작에 적용한 작업이론서이다. 보이탈라는 저명한 신화학자 조셉 캠벨이 제시한 ‘분리, 입문, 하강, 귀환’이라는 신화의 원리를 토대로 한 편의 시나리오를 열두 개의 틀로 분석하며 새로운 창작방법론을 제시한다.

이쯤 되면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바에는 섀넌 눈길을 주기 어렵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도 아니면 헨리웃식의 영웅영화가 미국의 패권주의 전략과 맞닿아 있다며 손사래를 칠 수도 있다. 다행히도 지레 그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이 책의 장점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오락영화와 고전영화를 사례로 들며 친절하게 분석하고 있으며 정치성이 배제된 창작이론이라는 점이다.

액션어드벤처, 로맨틱 코미디, SF, 스릴러, 서부영화 등 열 가지 장르의 영화들이 속살을 드러낸다. 다사다재, 명녀와 야수, 타미네이티즈, 스타워즈, 나홀로 집에,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에 이르기까지 장르별로 다섯 편이 선정



스튜어트 보이탈라 지음
『영화와 신화』

되어 있다. 50편의 영화 속 주인공들은 저마다 ‘보통세상’에서 출발해 ‘시련’을 거치고 ‘묘약과의 귀환’에 이르는 열두 개의 관문을 통과한다.

이처럼 다양한 장르와 눈에 띄게 다른 스타일의 영화들을 골뎌두를 엮듯 자료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같은 맛을 내는 음식으로 만들어내는 능숙한 요리사처럼 그가 사례로 들어 분석하는 영화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무릎을 치며 기업을 토하게 될 것이다. 텔마와 루이스와 조스 속에 신화의 원리가 숨겨져 있다!”

자칫 집착과 머릿속의 구름처럼 관념에 머물고 말 신화의 원리를 스크린에 펼쳐내는 보이탈라의 명쾌한 해석과 감상은 다시 한 번 영화의 세계에서 신화를 쫓는 고대로의 시간여행을 단행하게 한다. ‘영화와 신화’를 만나며 신화야말로 인류 최고의 자산이며 문화의 원천이라는 깨닫던 순간 양윤모 선생의 한 마디가 다시금 떠올랐다. “인류역사에서 언젠가 또 다른 미디어예술에 의해 영화는 사라질 거야. 하지만 신화는 영화라는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으며 영원히 살아남을 걸.”

한진오
극작가·한국학협동과정 박사수료

2012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

I. 세입·세출 총괄				
■ 세입				
구분		금액	비고	
예산액(A)	57,908,415,000		회비수입 : 16,301,070원	
전년도사고이월액(B)	5,539,132,180		명시회비 : 347,829,000원	
예산현액(C=A+B)	63,447,547,180		영입액 : 1,047,387,175원	
세입결산액(D)	63,293,175,032		일반운영경비 : 908,174,710원	
세입잔액(E=D-C)	-154,372,148		보조금수입 : 24,907,470원	
■ 세출				
구분		금액	집행잔액 내역	
예산액(F)	57,908,415,000		사고이월 : 2,697,529,130원	
전년도사고이월액(G)	5,539,132,180		회비회비 : 347,829,000원	
예산현액(H=F+G)	63,447,547,180		회비회비 : 347,829,000원	
세출결산액(I)	59,354,801,875		보조금수입 : 24,907,470원	
세출잔액잔액(J=H-I)	4,092,745,305		수입잔액 : 114,304,995원	
■ 이월현황				
이월총액(K)		사고이월(L)	명시이월(M)	세계입여금(N=K-L-M)
3,938,373,157	2,697,529,130	347,829,000	893,015,027	
세출잔액(세입·세출)에 따른 회비 수입 증가				
회비	36,573,835,000	36,573,835,000	36,580,136,070	16,301,070
이월금	1,827,305,000	3,155,233,120	4,982,538,120	4,982,538,831
보조금	10,806,025,000	2,365,899,060	13,171,924,060	-21,300
2011년도 대학 구조개혁특별사업 지원사업 과업비(불용액)잔액				
합계	1,583,906,000	1,583,906,000	1,416,371,240	-167,534,760
장기(비)를 위한 자원에 따른 예산(비) 수입 감소				
합계	50,709,071,000	5,521,132,180	56,312,203,180	56,180,948,901
수입대체금	7,117,344,000	18,000,000	7,135,344,000	7,132,226,131
외국인교과목 등 세입액 감소				
합계	57,908,415,000	5,539,132,180	63,447,547,180	63,293,175,032

2. 세출 (예산과목별 총괄)											
예산과목	당초 예산액 (A)	전용 등 증감액(B)	예산액 (C=A+B)	전년도 사고이월액(D)	예산잔액 (E=C+D)	지출액 (F)	다용연도 이월액 (명시이월)(H)	집행잔액 (I=E-F-G-H)	집행률 (J=(F+G)/E, %)		
합계	47,709,033,000	10,199,382,000	57,908,415,000	5,539,132,180	63,447,547,180	59,354,801,875	2,697,529,130	347,829,000	96%		
일반운영경비	39,218,707,000	766,339,000	39,985,046,000	3,140,233,120	42,994,789,120	42,090,757,630	114,844,780	11,502,000	96%		
인건비	16,617,630,000	-254,927,830	16,362,702,170	0	16,362,702,170	16,230,296,430	0	132,405,740	99%		
보급	3,843,655,000	-240,037,540	3,603,617,460	0	3,603,617,460	3,506,568,710	0	97,048,750	97%		
상여금	274,029,000	-17,169,890	256,859,110	0	256,859,110	256,859,110	0	0	100%		
청약수당	191,680,000	-32,576,190	159,103,810	0	159,103,810	159,103,810	0	0	100%		
초과근무수당	165,293,000	-39,434,390	125,858,610	0	125,858,610	115,801,270	0	10,057,340	92%		
정신건강지원	0	70,695,180	70,695,180	0	70,695,180	70,695,180	0	0	100%		
수당	1,374,274,000	52,385,000	1,426,659,000	0	1,426,659,000	1,403,762,310	0	22,896,690	98%		
차량	151,147,000	3,420,000	154,567,000	0	154,567,000	153,390,360	0	1,176,640	99%		
청약연금부	3,419,848,000	5,000,000	3,424,848,000	0	3,424,848,000	3,424,043,940	0	804,160	100%		
행정관리비	750,898,000	-21,677,000	729,221,000	0	729,221,000	729,220,550	0	450	100%		
연구자료비	2,663,722,000	5,000,000	2,668,722,000	0	2,668,722,000	2,668,480,770	0	241,230	100%		
사무관리비	818,734,000	-21,044,000	797,690,000	0	797,690,000	797,699,520	0	480	100%		
교과과정연구비	2,083,269,000	-13,813,000	2,069,456,000	0	2,069,456,000	2,079,456,000	0	0	100%		
교과과정연구비	881,081,000	-15,656,000	865,425,000	0	865,425,000	865,425,000	0	0	100%		
교과과정연구비	13,809,629,000	303,290,910	14,112,919,910	170,705,200	14,283,625,110	13,620,747,430	25,460,000	625,915,680	96%		
일반운영경비	2,642,681,000	-509,198,880	2,134,482,120	118,935,000	2,253,417,120	2,176,542,240	9,900,000	66,875,880	97%		
보급	1,003,103,000	-381,386,450	621,716,550	0	621,716,550	589,148,330	0	32,660,220	95%		
회비	9,740,000	-80,000	9,660,000	0	9,660,000	9,641,870	0	18,130	100%		
특근매식비	48,415,000	-15,802,000	32,613,000	0	32,613,000	30,800,000	0	3,813,000	94%		
운영수당	234,112,000	-28,843,000	205,269,000	0	205,269,000	171,805,000	0	33,464,000	84%		
임차료	758,820,000	-139,242,000	619,578,000	0	619,578,000	607,671,200	0	11,906,800	98%		
연구료	335,400,000	-11,624,000	323,776,000	0	323,776,000	319,997,330	0	14,778,670	99%		
시설장비유지비	3,187,119,000	-42,555,210	3,144,563,790	4,270,200	3,148,833,990	3,129,597,600	9,500,000	9,736,390	100%		
차량선박비	42,720,000	-790,000	41,930,000	0	41,930,000	41,923,970	0	6,030	100%		
재료비	517,610,000	-172,283,000	345,327,000	0	345,327,000	345,327,000	0	0	100%		
교육활동지원	0	741,542,080	741,542,080	0	741,542,080	739,325,610	0	2,216,470	99%		
학술활동지원	0	38,200,000	38,200,000	0	38,200,000	37,835,890	0	364,110	99%		
차량	0	11,502,000	11,502,000	0	11,502,000	0	11,502,000	0	0%		
국내여비	916,133,000	-84,304,140	831,828,860	0	831,828,860	790,008,520	0	41,820,340	96%		
국외여비	182,140,000	-11,899,000	170,241,000	0	170,241,000	163,221,310	0	7,019,690	96%		
업무추진비	1,089,428,000	-98,061,500	991,366,500	0	991,366,500	921,955,030	0	69,411,470	93%		
복리후생비	576,923,000	-59,715,390	517,207,610	0	517,207,610	512,697,060	0	4,510,550	99%		
연구개발비	2,265,302,000	896,842,000	3,162,144,000	47,500,000	3,209,644,000	2,914,801,920	6,000,000	288,842,080	91%		
강사연구비	5,896,645,000	294,946,380	6,193,591,380	0	6,193,591,380	6,127,710,740	0	65,880,640	99%		
보급	5,134,748,000	-78,745,210	5,056,002,790	0	5,056,002,790	5,043,266,410	0	12,736,380	100%		
특근매식비	503,897,000	393,191,580	897,088,580	0	897,088,580	853,995,550	0	43,093,030	100%		
배식	200,000,000	-19,500,000	180,500,000	0	180,500,000	180,477,780	0	22,220	78%		
자본투자사업비	2,792,801,000	515,036,540	3,307,837,540	2,969,527,920	6,277,365,460	6,112,003,000	89,384,780	7,277,650	99%		
시설비	1,329,000,000	249,306,000	1,578,306,000	2,958,248,920	4,536,554,920	4,522,533,920	0	14,021,000	100%		
시설부대비	103,000,000	261,400,000	364,400,000	11,279,000	375,679,000	320,958,350	89,384,780	55,337,870	85%		
자산취득비	1,360,801,000	4,330,540	1,365,131,540	0	1,365,131,540	1,358,512,760	0	6,618,780	100%		
과년도지출	1,000,000	0	1,000,000	0	1,000,000	0	0	1,000,000	0%		
잔지출	1,000,000	0	1,000,000	0	1,000,000	0	0	1,000,000	0%		
수입예치금	10,000,000	-92,007,000	7,993,000	0	7,993,000	0	0	7,993,000	0%		
수입예치금	16,120,326,000	997,018,000	17,117,344,000	18,000,000	17,135,344,000	6,894,712,005	336,327,000	114,304,995	94%		
일반운영경비	2,050,135,000	32,781,000	2,082,916,000	0	2,082,916,000	2,079,845,000	0	2,995,000	100%		
보급	705,279,000	-17,142,000	688,137,000	0	688,137,000	687,428,330	0	710,670	99%		
상여금	10,100,000	-900,000	9,200,000	0	9,200,000	9,597,950	0	2,050	100%		
청약수당	26,420,000	-4,320,000	22,100,000	0	22,100,000	22,100,000	0	0	100%		
초과근무수당	67,142,000	-6,070,000	61,072,000	0	61,072,000	60,523,340	0	548,660	99%		
수당	1,100,134,000	63,061,000	1,163,195,000	0	1,163,195,000	1,161,606,180	0	1,588,820	99%		
임용합금	21,760,000	-490,000	21,270,000	0	21,270,000	21,270,000	0	0	100%		
연구자료비	105,500,000	-2,828,000	102,672,000	0	102,672,000	102,672,000	0	0	100%		
예산과목	당초 예산액 (A)	전용 등 증감액(B)	예산액 (C=A+B)	전년도 사고이월액(D)	예산잔액 (E=C+D)	지출액 (F)	다용연도 이월액 (명시이월)(H)	집행잔액 (I=E-F-G-H)	집행률 (J=(F+G)/E, %)		
일반운영경비	13,800,000	1,050,000	14,850,000	0	14,850,000	14,750,000	0	100,000	99%		
인건비	3,827,221,000	859,028,000	4,686,249,000	18,000,000	4,704,250,000	4,118,512,775	0	273,113,960	103,623,265	92%	
보급	682,269,000	492,421,530	1,174,690,530	0	1,174,690,530	788,346,870	0	386,343,660	2,043,750	100%	
회비	691,656,000	56,227,000	747,883,000	0	747,883,000	746,876,270	0	100,670	96,746,730	99%	
특근매식비	14,520,000	-2,406,000	12,114,000	0	12,114,000	12,114,000	0	0	100%		
운영수당	9,600,000	-2,135,000	7,465,000	0	7,465,000	6,339,000	0	1,126,000	85%		
임차료	39,910,000	870,000	40,780,000	0	40,780,000	40,328,000	0	452,000	99%		
연구료	51,680,000	2,020,000	53,700,000	0	53,700,000	53,390,000	0	310,000	99%		
연료비	240,620,000	54,850,000	295,470,000	0	295,470,000	295,447,760	0	24,240	100%		
시설장비유지비	225,100,000	72,412,000	297,512,000	0	297,512,000	274,899,880	0	21,000,000	1,612,120	92%	
재료비	1,006,544,000	331,302,000	1,337,846,000	0	1,337,846,000	1,337,846,000	0	0	165,135	100%	
직접비	0	212,107,000	212,107,000	0	212,107,000	0	0	212,107,000	0		
국외여비	102,820,000	4,300,080	107,120,080	0	107,120,080	105,205,340	0	6,960	1,907,780	98%	
국내여비	58,520,000	21,300,000	79,820,000	0	79,820,000	80,676,880	0	182,200	182,200	100%	
업무추진비	345,459,000	-20,884,000	324,575,000	0	324,575,000	316,880,420	0	8,694,580	8,308,420	97%	
복리후생비	91,844,000	-2,357,000	89,487,000	0	89,487,000	88,712,110	0	774,890	99%		
연구개발비	55,000,000	24,940,000	79,940,000	18,000,000	97,940,000	57,940,000	0	40,000,000	0	59%	
강사연구비	278,339,000	43,500,000	321,839,000	0	321,839,000	318,755,390	0	3,683,610	99%		
보급	107,696,000	28,171,000	135,867,000	0	135,867,000	134,455,000	0	1,412,000	99%		
특직충당금	76,243,000	-3,967,000	72,276,000	0	72,276,000	70,164,940	0	2,111,060	99%		
배상금	95,000,000	19,296,000	114,296,000	0	114,296,000	114,135,450	0	160,550	100%		
자본투자사업비	162,688,000	70,728,000	233,416,000	0	233,416,000	167,498,040	0	63,213,040	270,920	72%	
시설비	0	40,000,000	40,000,000	0	40,000,000	0	0	40,000,000	0	0%	
자산취득비	162,688,000	30,728,000	193,416,000	0	193,416,000	167,498,040	0	23,213,040	2,704,920	87%	
예	1,243,000	0	1,243,000	0	1,243,000	0	0	1,243,000	0	204,000	100%
보조금사업비	2,370,000,000	8,436,025,000	10,806,025,000	2,380,899,000	13,186,924,000	10,579,322,240	2,582,684,380	0	24,907,470	100%	
일반운영경비	105,300,000	2,132,264,820	2,237,564,820	0	2,237,564,820	2,225,836,170	0	1,928,650	99%		
보급	84,000,000	171,369,820	255,369,820	0	255,369,820	255,361,880	0	7,930	100%		
상여금	0	1,855,109,000	1,855,109,000	0	1,855,109,000	1,855,109,000	0	0	100%		
초과근무수당	0	14,682,000	14,682,000	0	14,682,000	14,682,000	0	0	100%		
수당	21,300,000	69,076,000	90,376,000	0	90,376,000	88,465,280	0	1,920,720	99%		
임용합금	0	22,028,000	22,028,000	0	22,028,000	22,028,000	0	0	100%		
일반운영경비	308,900,000	2,758,119,570	3,067,019,570	15,000,000	3,082,019,570	3,068,973,380	6,000,000	7,046,190	100%		
일반수용비	36,890,000	58,650,000	95,540,000	0	95,540,000	89,900,630	0	39,370	100%		
공공연구개발비	13,000,000	34,094,000	47,094,000	0	47,094,000	47,094,000	0	0	100%		
회비	0	256,0									

생명학대, 인간에게 행하는 학대나 다름 없어

기고 남방큰돌고래 사건으로 본 동물 생명권



김 정 도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간사

2011년부터 시작되어 2013년까지 끈질기게 이어온 퍼시픽랜드 남방큰돌고래 불법포획사건이 2013년 3월 28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마무리됐다. 멸종위기종에 대한 남획과 학대로 점철된 아비한 범죄의 심판이 비로소 막을 내린 것이다.

남방큰돌고래 불법 포획 그리고 돌고래쇼로 위장된 학대

퍼시픽랜드 남방큰돌고래 불법포획 사건은 지난 1990년도부터 어민들이 흔쾌한 남방큰돌고래 30여마리를 불법으로 퍼시픽랜드가 매입하고, 매입한 남방큰돌고래를 돌고래쇼 공연장에 출연시키거나 서울대공원 등에 판매·교환한 사건이다.

어민들에 의해 불법 포획된 돌고래는 마리당 700만원에서 1000만원에 퍼시픽랜드에 팔렸다. 팔려온 돌고래 상당수는 1년 안팎의 훈련을 거쳐 퍼시픽랜드 돌고래쇼 공연장에 출연했으며, 일부는 서울대공원에 마리당 바다사자 2~3마리 또는 6000만원과 교환되었다.

돌고래는 국제포경규제협약(ICRW)에 따라 포획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따라서 상업적 포획이 금지되어 있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연을 위한 돌고래를 외국에서 수입할 경우 마리당 3억~5억 원의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퍼시픽랜드는 돌고래를 불법포획해 온 것이다.

퍼시픽랜드에 의해 불법 포획된 남방큰돌고래는 국제적으로도 과도한 남획으로 국제포경위원회(IWC)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그리고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운영하는 멸종위기종 관리 리스트인 적색목록(RED LIST)을 통해 국제적인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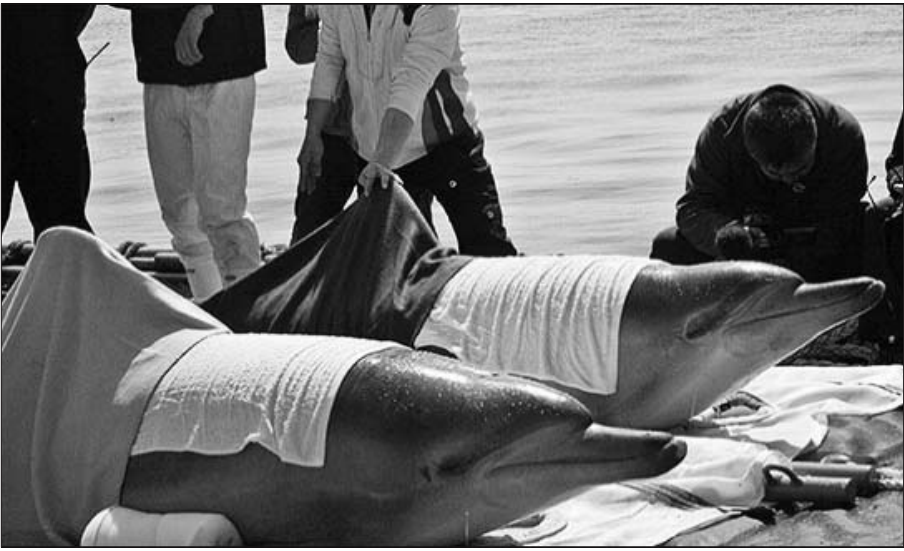
더욱이 남방큰돌고래는 큰돌고래와 다른 종이라는 것이 밝혀진 지 오래되지 않아 전 세계적인 개체수 현황과 서식범위조차 제대로 파악되어 있지 않다. 그만큼 멸종위기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 국내에서는 오직 제주도 인근연안에서만 발견되는데, 제주도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는 120여 마리 정도로 그 수가 매우 적고 언제든 개체수가 급감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수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멸종위기에 처한 남방큰돌고래를 퍼

시픽랜드는 불법으로 매입해 온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잡힌 돌고래들은 좁은 수조에서 돌고래쇼를 위한 훈련이라는 학대를 견뎌야 했고, 살기 위해 고통스런 돌고래쇼를 감내해야 했다. 이런 와중에 많은 돌고래가 죽음을 맞았다. 퍼시픽랜드에서 실제 일어난 학대행위는 인간의 잔인성을 그대로 나타낸다.

먼저 잡혀온 돌고래는 야생성을 버리는 순치훈련을 받는다. 밥을 굶기면서 죽은 생선을 먹도록 길들이는 것이다. 개체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주를 굶기면 죽은 생선을 자유롭게 먹는다. 그리고 훈련과정에서 성과에 따라 먹이가 주어진다. 즉 굶기는 것이 바로 훈련의 핵심이다.

이렇게 길들여진 돌고래들이 공연에 투입되면 수많은 위험에 노출된다. 대표적인 것이 점프 후에 부딪히는 사고다. "남방큰돌고래 어미가 천장에 달린 볼 터치를 하려고 번쩍 뛰었어요. 그런데 도약 지점을 잘못 잡은 거예요, 바로 아래 새끼가 있었고 어미는 본능적으로 새끼를 피했어요. 하필 떨어진 곳이 공연장 무대 시멘트 바닥이었어요. '쿵' 하는 소리가 공연장을 울렸죠." 퍼시픽랜드에서 일했던 직원이 2004년께 벌어진 사고를 증언한 내용이다. 이렇게 추락한 돌고래



런 이유로 동물 생명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자각으로 1973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이 체결되었다. 그리고 1992년 리우회의(환경 및 개발에 관한 국제연합 회의-UNCED)에서 생물다양성협약(CBD)이 발표되면서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한 구속력을 가진 국제협약이 발효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인간에 의한 야생동물의 포획과 전사 그리고 학대는 계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멸종되거나 멸종위기에 처하는 종이 늘고 있다. 그리고 제주도 역시 남방



해상가두리에 임시 방류된 춘삼이와 D-38(위, 사진 제공=뉴스1 이상민 기자). 나이지리아에서는 야생 하이에나를 포획해 두꺼운 쇠사슬과 임가개로 길들여 돈벌이에 활용한다(아래, 사진제공=피터 휴고).

하는 기본 질서이자 원리이지만 이런 원리를 여전히 인간사회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인간과 동물의 공존은 선택권 아닌 필수

하지만 이런 외면이 인간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동물의 죽음이 곧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한 종의 멸종은 단지 한 생명체가 지구상에서 사라졌다는 비극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한 종의 멸종은 생태계의 축을 무너뜨리고 연쇄반응으로 생태계를 변화시켜 많은 생명에게 죽음을 선사한다. 그 죽음의 선상에 인간이 제외되지 않는다.

더욱이 생명에 대한 학대는 인간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반증이다. 생명에 대한 학대가 만연한 사회는 그만큼 인간이 인간에게 행하는 정신적, 물리적 학대가 큰 사회라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이렇듯 생명에 대한 존중은 인간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생명권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져야 할 필요가 있다. 2014년 우리나라에서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가 개최된다. 그리고 남방큰돌고래 불법포획 사건 등으로 어느 때보다 생명권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런 분위기를 바탕으로 인간과 동물이 건강하게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과 인식전환이 활발히 전개되어야 한다. 부디 인간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

강연 요지 '제주미래비전과 특별법' 토론회

제주다움의 '행복공동체' 건설해야 제주국제자유도시는 '무늬만 국제도시'

'제주미래비전과 특별법' 토론회가 지난날 3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렸다. 이날 강봉수(윤리교육과) 교수는 '제주다움의 비전과 대안 모색을 위한 방법론' 주제발표를 했다. 다음은 발표 요지.

지난 10년동안 제주가 발전비전으로 삼아온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대해 제주 담지 못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제주다움'에 주목하고 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국제자유도시는 제주다움과 거리가 있다고 본다.

국제자유도시를 출범하면서 내걸었던 장밋빛 비전들이 있다. 이틀테면 싱가포르와 홍콩을 넘어서겠다. 친환경적 복합형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종합적 경제특구를 만들겠다. 환경해경제권과 환경해경제권을 연결하고 동북아경제권과 동남아경제권 나아가 아시아태평양경제권을 연결하겠다는 등의 비전들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이른바 5대 선도프로젝트 등도 추진해왔다. 이런 것들을 반성적으로 돌아보고 잘못된 점을 진단해 봐야 한다.

제주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져온 제주인의 문화와 생리에 맞는 발전비전을 제주다움의 행복공동체라 하겠다. 여기서 문화란 문화문법 혹은 패러다임으로서의 문화이다. 이것은 제주인들이 긴 삶의 역사를 통해 만들어졌고 마치 유전자처럼 제주인들에게 선형적으로 유전돼온 그래서 제주인들의 마음의 습관처럼 굳어져버린 준영구적으로 변하지 않는 심층문화이다. 이러한 심층문화인 문화문법에 토대하지 않은 어떠한 발전전략도 성공하기 어렵다고 본다.

새뮤얼 헌팅턴은 그동안 인류발전의 역사를 반성적으로 돌아보고 내린 결론이 '문화적 가치가 인류발전을 결정한다'는 것이었다. 경제발전, 물질적 복지, 사회경제적 평등, 민주주의 등의 인류발전을 가져온 것은 특정 정치집단도 어떤 제도나 개발전략도 아닌 문화였다. 이들이 말하는 뜻도 발전비전이나 전략이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라 문화문법에 토대한 발전비전과 전략만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러한 뜻에서 문화문법에 토대한 제주의 발전비전을 제주다움의 행복공동체라 하겠다.

제주문화의 패러다임은 평등성, 가족성, 현세성, 합리성, 온정성(배려), 포합성을 들 수 있겠다. 그것을 하나의 이념으로 묶어내면 공동체주의적 개인주의 혹은 개인주의적 공동체주의이다. 나아



강 봉 수(윤리교육과) 교수

가 공동체주의적 개인주의의 이념에 함축된 윤리적 가치는 생태, 인권, 평화로 요약할 수 있다. 평등성과 합리성이 개인주의를 함축한다면 현세성과 온정성은 공동체주의를 함의한다. 평등성은 인종, 성별, 부귀, 계급을 초월해 모든 개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든 개인이 평등하다는 인식의 철학적 전제는 인간이 이성적 존재라는 데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합리성은 개인주의를 함축하는 문법이고 또 인간존중과 인권의식의 사유문법이라 할 수 있다.

현세성은 현재 세계를 내세처럼 평화의 세계로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리고 현재 세계를 평화의 세계로 만들려면 특정 엘리트 혼자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협동하고 배려해야만 가능하다. 또한 평화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인간들뿐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신과 인간과 자연이 서로 어우러져 같이 가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현세성과 온정성은 공동체주의를 함축하는 문법이고 또한 생명존중과 생태주의적 사고문법으로 읽을 수 있다. 포합성은 전혀 성격을 달리하는 두 가지 이상의 요소가 조화롭게 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순된 성격의 것들임에 동시에 같이 가려면 평화와 관용의 사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제주다움의 행복공동체를 일구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제주의 문화문법을 찾아내고 이에 토대한 새로운 제주다움의 비전을 세우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작업은 누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다. 다양한 전문가 집단이 공동연구하고 뜻있는 시민들이 집단지성을 통해 제주다움의 비전을 같이 만들어 나가고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현을 위해서 정치가, 행정가들의 참여도 중요하다. 제주다움의 비전과 대안의 실현은 제도와 법을 통해 지원돼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행정자치모형, 교육자치모형도 고민해봐야 하고 이를 법적으로 지원할 특별법의 개정도 고민해야 한다.

정리=김병지 기자



제주어 낱말맞추기

제주어 공부도 하고, 2만원 상품권도 받아!

1)				4)	5)	
		3)				
2)				6)		
			7)			
8)			9)			10)

소속·직위(학과·학년):

이름: 연락처:

제주대신문

가 로 열 쇠

- 1) 5월 8일은 어버이날이다. 어머니와 아버지 두 관계는 부모라고 하는 데, '부모'를 뜻하는 제주어는 '○○' 또는 '○○세'라고 한다. '○ ○ 씨음 개 씨음'이라는 속담도 전해진다.
- 2) '장난감'을 뜻하는 제주어다. 달리 '○뎡'라고도 한다.
- 4) 김을 땀 땀 사용어는 도구 이름이다. 지역에 따라서 '○깍지, ○깍썰, ○깍기, ○개, 호행어'라고도 한다.
- 6) 동짓날에 쑤어 먹는 음식 이름이다.
- 7) '도매비'를 높여 부르는 이름이다. 이 신을 놀리여 한자의 병을 치료하는 의례를 제주에서는 '○○놀이'라고 한다.
- 8) '상추'를 뜻하는 제주어다.
- 9) '달리기'를 제주에서는 '○○○○'이라고 한다. 달리 '○○세기'라고도 한다.

세 로 열 쇠

- 1) '두 사람이 마주 서서 서로 번갈아가며 절구공어로 방어를 썰는 일'을 말한다. 세 명이 번갈아 가면서 방어를 썰으면 '식○○○', 네 명이 번갈아 가면서 방어를 썰으면 '닉○○○'라고 한다.
- 3) 예전에는 '쥬 잡는 날'이 있을 정도로 집안에 쥬가 많았다. '쥬'를 뜻하는 제주어도 지역에 따라서 '○○' '쥬○', '쥬○'처럼 다양하게 분화해 나뉘었다.
- 5) 서귀포 지역에서는 '개를 방어서 풀만 죽'을 '○○○'이라고 한다. 지역에 따라서 '깁○○' 또는 '깁○○'이라고 하는데, 무릎 아플 때 끓여 먹으면 좋다는 속설이 있다.
- 6) 예전엔 제주 사람들은 이것으로 물을 들인 옷을 많이 입었다. 이것으로 들인 옷은 여름철에 많이 자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위에도 덜 더워서 노동복으로 제격이다.
- 7) '음력 2월'을 이르는 제주어다.
- 8) '노열거나 불한 마음'을 뜻하는 제주어다. 이것이 나뉘면 '○○ 난 못 살기여'처럼 말한다.
- 10) '짐을 싣거나 수레를 끌기 위하여 소나 말 따위의 등에 얹는 안장'을 의미한다. 표준어 '갈매'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제주어 낱말맞추기 응모자는 2013년 5월 22일(수) 오후 6시까지 풀이지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당첨자 2명에게 2만원권 문화상품권 1장씩을 드립니다. 이번호 당첨자는 5월 27일자(월) 894호 제주대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064)754-2277 또는 010-9206-4598

제주어 낱말맞추기 890호당첨자

고경희(국어국문학과 3)

<890호 정답>

1)뎡	박	2)낭		8)썰	9)다	리
		3)푼	채		울(불,돌)	
4)글	깍	이		10)자	리	
청				11)다	12)말	
	5)문				리(뤼)	
6)소	도	리	3)맞	춤		
개			절			

출제: 국어문화원 부설 제주어센터

교육역량강화사업 안내

1. 2013학년도 취업동아리 농협만 추가 모집

- ▶지원자격: 제주대 재학생 및 휴학생
- ▶선발기준: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학생경력관리점수 우수자 우선 선발
- 외국어 능력 및 성적 우수자 우대
- ▶선발인원: 2학년 10명, 3학년 10명(학과 구분 없음)
- ▶동아리활동 지원사항
- 운영비 지원: 동아리별 연 200만원 이내
- 멘토 활동비: 동아리별 연 50만원
- 활동 공간 및 행정지원, 선배 및 멘토 섭외 지원 등
- ▶모집기간: 5월 10일까지
- ▶문의: 취업전략본부(754-2304)

2. 2013학년도 2학기 필리핀 자매 교류수학

- ▶지원자격: 학점 2.7점 이상
- 파견 종료후 우리대학에서 1학기 이상 수학할 잔여학기가 있는 학부 재학생
- 같은 프로그램으로 파견된 경험이 없는 자
- 토의 500점 이상 소지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영어능력 소지자
- 가기 전, 후 영어성적 제출
- ▶모집기간: 5, 6월 공고
- ▶문의: 국제교류본부(754-2197)

3. 안전행정부 견습직업 준비반 회원 모집

- ▶지원자격: 3,4학년 재학생(2015년 2월까지 졸업가능자)
- ▶지원내용: 스티디그룹 운영, 공식적적성평가 동영상 강좌, 모의고사, 특강 운영
- ▶모집기간: 5월 31일까지
- ▶문의: 취업전략본부(754-2307)

동문칼럼

<지슬>과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마흔 하나



진명희
방송작가
일어일본학과 92학번

92년이였다. 대학 생이 되고 성인이 된 것이. 성인으로 사회 생활을 한지 어느새, 무려 20년이 넘었다. 그때는 몰랐다. 20년 넘게 성인으로 살고 도 여전히 나에 대해 고민하게 될 줄. 여전히 일에 대해 고민하게 될 줄. 하긴 대학생이 될 무렵에도 졸업을 할 무렵에도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살게 될지도 몰랐다.

전공에 대한 심도깊은 고민은 해야하는 것인 줄도 모른채 학과를 선택하고 그마저도 학과 강의보다 더 자주, 더 열심히 다른 일을 하며 4년이 어떻게 간 줄도 모른 채 졸업을 맞았다. 그때의 불안함이란,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채로 당장 밥벌이 시장에 나서야 했던 순간의 공포감은 지금도 종종 악몽의 형태로 마주하게

될 만큼 심각한 것이었다.

다행이라면 할 줄 아는 건 없었지만 하고 싶은 게 있었다는 것. 심각할 만큼 막연했지만 나는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어떤 종류의 글이든, 글을 써서 먹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시장조사는 전혀 되어있지 않았지만 글을 쓰는 사람으로 사는 건 어려서부터 거의 유일하게 품었던 꿈이었다.

어떻게 글로 먹고 살까? 1년 먼저 방송작가 일을 시작한 선배와 동기가 롤모델이 되어 주었다. 방송사에서 운영하는 방송인 양성 아카데미가 있다는 것도 선배와 동기를 통해 알게 되었다. 비행기표와 졸업 후에 모은 몇 달간의 생활비를 들고 아는 사람이라곤 경기도에 사는 언니밖에 없는 ‘육자’로 나왔다.

그렇게 방송작가가 됐다. 한달 최저임금에 훨씬 못미치는 급여를 받는 ‘막내작가’로 일년을 보내고 모자란 돈과 부족한 잠에 쫓기는 와중에도 내가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모니터했다. 어떤 분야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길을 만들어 갔는지를 파악하는 건 농치지 말아야 할 일이다. 그리고 어느새 ‘KBS스페셜’과 ‘환경스페셜’과 ‘수요기획’과 ‘MBC스페셜’과 ‘SBS 뉴스추적’과 ‘EBS 하나뿐인 지구’를 두루 섭렵한 경력 17년차 고참 방송작가가 되었다.

마흔 한 살을 맞은 지금 내가 일해서 번 돈으로 살 집을 마련했고 힘겹지만 일한 댓가로 굶지 않고 산다. ‘내가 이 일에 재능을 갖고 있는가’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나는 이 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가’가 능력인 시기를 고맙게도 맞고 있다. 남들도 다 해낸 일에 대해 좀 길게 썼다. 후시라도 뒤에 오는 후배님들이 길을 잃고 헤맬 때 참고가 될까 하는 마음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굶지 않고 사느라 었어질 뻔 하고 넘어질 뻔 하면서 사십대를 맞은 요즘 또 나는 잠시 길을 잃었다. 이대로가 제대로인가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

얼마 전 무려 10회 가까이 봤던(반값고 고마운 마음에 주면 지인 10여명에게 내 돈으로 티

켓을 제공하기까지 했다.) 영화 <지슬>을 만들 어낸 이들처럼 ‘돈’을 넘어선 가치를 치열하게 추구하며 사는 게 제대로인 것은 아닌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가 본래 제목이었다는 <어떻게 살 것인가>가 제기하는 눈물나는 물음, ‘지금 존엄한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 나는 답을 가지고 있는가?

연대와 진정성, 사는 동안 농지말아야 이 두 가지를 나는 충족하고 있는가를 요즘 자주 되 물게 된다. 올해 여름 살을 맞은 아이를 대안학교에 진학시킨 것도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려는 시도였다. 그리고 나서 도 나는 여전히 해매는 중이다. 마흔 하나에 다시 성장통을 겪고 있다.

어디를 향해 어떻게 걸어 나가야 할 것인가? 마흔을 넘어도 고민은 끝나지 않는다. 인생 전반을 보낸 지금 사춘기가 찾아들었다. 20대에 선배와 동기를 통해 내 길을 찾아낸 것처럼 다시 사람들과 연대하며 고민에 대한 답을 찾아 보려 한다.

돌하르방

“그래도 전 당신처럼 살 겁니다”



김명지 편집국장

얼마 전 서점을 찾아 시집을 고르던 중 박노해 시인의 시집을 골랐다. 온통 진홍색 빛으로 물든 시집이라 눈에 띄었다. 시집 이름은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박노해(朴勞解)는 시인, 노동운동가, 평화운동가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람이다. 그는 1984년 첫 시집 『노동의 새벽』은 당시 우리나라의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했고 젊은 대학생들을 노동현장으로 뛰어들게 하면서 한국사회와 문단을 충격으로 뒤흔들었다.

그는 1991년 3월 구속 후 24일간 잔혹한 고문을 당한 끝에 국가보안법상 소위 ‘반국가단체 수괴’ 죄목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98년 8월 15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복역 8년만에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2000년부터 그는 ‘과거를 팔아 오늘을 살지 않겠다’며 스스로 사회적 발언을 금기시한 채, 홀로 세계의 빈곤 지역과 분쟁 현장을 돌며 조용히 평화운동을 전개했다. 박노해 시인은 노동자의 시인, 사회의 진보를 추구하는 문인이라는 이미지만을 가지고 있던, 필자의 눈에 들어온 시가 하나 있었다. ‘넌 나처럼 살지 마라’라는 시다. 시는 다음과 같다.

“넌 나처럼 살지 마라/아버지, 술 한 잔 걸치신 날이면/넌 나처럼 살지 마라//어머니, 파스 냄새 물씬한 귀갓길에/넌 나처럼 살지 마라//이 악물고 공부해라/좋은 사무실 취직해라/악작같이 돈 벌어라//

악하지도 못한 당신께서/악도 남지 않은 취침이는 몸으로/넌 나처럼 살지 마라 울먹이는 밤//내 가슴에 슬픔의 칼이 돋아날 때/나도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아요/스무 살이 되어서도/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고/꿈을 찾는 게 꿈이어서 억울하고//

어머니, 당신의 소망은 이미 죽었어요/아버지, 이제 대학 나와도 내 손으로/당신이 꿈꾸는 밥을 벌 수도 없어요//넌 나처럼 살지 마라, 그래요,/난 절대로 당신처럼 살지는 않을 거예요/자식이 부모조차 존경할 수 없는 세상을/제 세끼에게 나처럼 살지 말라고 말하는 세상을/난 결코 살아남지 않을 거예요/아버지, 당신은 나의 하늘이었어요/당신이 하루아침에 비랑 끝에서 떠밀려/어린 내 가슴 바닥에 떨어지던 날/어머니, 내가 딛고 선 발밑도 무너져 버렸어요/그날, 내 가슴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공포가/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새겨지고 말았어요//세상은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고/그 어디에도 기댈 곳도 없고/돈 없으면 죽는구나/그날 이후 삶이 두려워졌어요//

넌 나처럼 살지 마라/알아요, 난 죽어도 당신처럼 살지는 않을 거예요/제 자식 앞에 스스로 자신을 죽이고/정직하게 맘 흘려온 삶을 내뽐게쳐야 하는/이런 세상을 살지 않을 거예요/나는 차라리 죽어 버리거나 죽어 버리겠어요/돈에 미친 세상을, 돈이면 다인 세상을// 아버지, 어머니, 돈이 없어도 당신은 여전히 나의 하늘입니다/당신이 잘못 산 게 아니잖아요/못 배웠어도, 힘이 없어도,/당신은 영원히 나의 하늘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다시 한 번 예전처럼 말해주세요/나는 없이 살아도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나는 대학 안 나와도 그런 짓 하지 않았다고/어떤 경우에도 아닌 건 아니다/가슴 펴고 살아가라고//다시 한번 예전처럼 말해주세요/누가 뭐라 해도 녀답게 살아가라고/너를 망치는 것들과 당당하게 싸워가라고//너는 엄마처럼 아버지처럼 부끄럽지 않게 살으라고/다시 한번 하늘처럼 말해주세요”

이 시는, 열심히 일했지만 당신이 살아온 길이 잘못됐다고, 바보처럼 살아온 당신처럼 살지 말고 남들 무시 받지 말고 평평거리면서 살라고 말하는 부모님께 보내는 자식의 시이다. 필자 역시 부모님께 이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사실 이 세상의 수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하는 말일 것이다.

오늘은 어버이날이다. 부모님이 낳아주고 길러 준 은혜에 감사를 표하는 날. 오늘 부모님의 가슴 위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선물을 드리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하지만 ‘넌 나처럼 살지 마라’고 말하는 부모님께 진심을 담은 한 마디가 더 뜻 깊지 않을까. “그래도 저는 당신처럼 살 겁니다” ‘당신께서 지나온 삶의 터널이 부끄럽지 않았다고, 이 세상에 수많은 위인 중에서도 당신이 최고’라고 말이다.

알림 여론면 (7면) 고정칼럼인 교수시론은 집필 예정이었던 필자의 사정으로 이번주는 쉽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독자기고

학내 교육프로그램 다양 ‘적극 활용을’



강형묵
사학과 4

새 학기가 시작되고, 대학생생활에 한껏 기대에 부풀은 2천여 신입생들이 교정을 채운지도 어느새 두 달 남짓. 이렇게 따사롭고 좋은 날, 이 글을 쓰고 있는 나 자신도 어느덧, 대학생생활의 끝자락인 4학년을 마무리하고 있다.

그 동안 나는 대학생생활을 하며 솔직히 지난 3년간 딱히 이렇다 할 꿈이나 지향점 없이 그저 막연한 학교생활을 영위하며 학과생활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했었다. 그러던 차에 무료함을 느꼈던 기존의 틀을 탈피하고자 학교 활동에 과감히 눈을 돌렸지만 막상 내 주변에 같이 활동하는 동료가 없어 혼자 외롭게 시작됐다. 시작은 녹록치 않아 전전긍긍하던 차 교내 흡피를 통해 알게 된 취업전략본부 Supporters(JOB ATOZ) 활동을 발단으로 학교활동의 즐거움과 유익함을 느껴 본격적으로 여러 활동에 뛰어들게 되었다.

그러던 중 작년 12월 우연히 참가하게 된 ‘Dale Carnegie 리더십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통해 남은 대학생생활을 보다 의미 있게 보낼 방법과 미래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재정립할 수 있었다. 나는 대학생생활을 목표나 지향점 없이 청춘의 소중함을 미처 깨닫지 못한 채 자신감 없는 학교 생활을 영위하고 있을 다수의 학우들에게 이번 프로그램 경험의 이점과 이후, 변화를 겪게 된 본인의 느낌과 대학생생활을 유익하게 보내는 방법을 전하고자 한다.

그에 앞서 ‘Dale Carnegie 리더십 트레이닝’

을 소개해본다. 이 프로그램은 인생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 자세를 통해 도전해보는 자신감을 형성하고, 리더십 증진을 위해 진행되는, 대학생에게만 국한된 과정이 아닌 중·고등학생, 사회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그 중 대학생 과정은 총 8주에 걸쳐 진행되는 데 이름 기억법, 비전 설정, 후호적 인간관계, 자신감 증진, 명확한 의사 전달, 비전 재설정 등의 다양한 코스를 경험했다.

8주간의 교육을 끝으로 나는 ‘제주대 Dale Carnegie 2기’ 과정을 수료했으며, 현재 ‘제주대 Dale Carnegie 3기, 4기’ 코치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예전에 미처 느끼지도, 얻지도 못했던 많은 것을 얻었고 이전과 확연히 달라진 나를 느낄 수 있었다고 자신한다.

이렇듯 ‘Dale Carnegie 리더십 트레이닝’ 교육을 비롯한 여러 학교활동은 이전에 별다른 꿈 없이 일정 범주 밖을 벗어나지 못하며, 나 스스로 잘났다는 자만심에 빠져 우물 안 개구리였던 나로 하여금 불과 반년도 안 된 시간에 약 300여 명의 다양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인연의 소중함도 느끼게 했으며 이를 통해 자만심이 아닌 진정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Dale Carnegie 리더십 트레이닝’ 등 학교의 학내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 제주도는 언제나 섬이라는 일정한 범주에 갇혀 있어 발전하려는 욕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지금 이 시간에 자신의 꿈과 미래를 위해 학교 활동을 매개체 삼아 자신을 가꾸고 있다. 그 중 ‘Dale Carnegie 리더십 트레이닝’을 통해 여러분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카메라 현장



“산천단 좁은 다리는 여전” 학교 후문의 산천단마을로 진입하는 도로에 대한 통행자들의 안전문제가 계속 지적돼 제주시가 작년에 보행환경이 열악한 이 일대 인도를 확장·정비했다. 하지만 산천단도로로 향하는 좁은 다리는 아직도 그대로여서 여전히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김동현 기자

시사키워드

개성공단, ‘경제통일’ 상징에서 갈등의 불씨로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업지구(이하 개성공단)는 지난 2004년 7월 30일 첫 준공됐다. 개성시 일대 2천만평에 공업구역 800만평과 구시가지지를 포함한 배후도시 1200만평으로 조성됐다. 정부는 평양에서 160km, 서울에서 60km 떨어진 개성공단을 서울과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후방 생산기지 겸 남북 직접교역의 중계기지로, 또 동북아경제중심의 한 축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었다. 개성공단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국내 123개 입주기업에 북측 5만3466명, 남측 788명의 근로자가 있었다. 하지만 남북경색에 따른 북한의 개성공단 통행제한 조치에 이어 완전폐쇄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리측 인원의 귀환으로 개성공단은 잠정폐쇄 상태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남북경협 최후의 보루인 개성공단은 가동 9년 만에 존폐 기로에 서게 됐다.

정부가 개성공단 체류 남측 근로자 철수를 결정했지만 개성공단의 안정적 유지·발전 원칙은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북측도 개성공단의 책임은 남측에 있다는 원론적 주장만 되풀이하며 아직은 ‘완전 폐쇄’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또 우리 측은 개성공단이 유일한 남북경협 창구임을 염두에 두고 단선·단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북측도 근로자 5만3000여명의 생계가 달렸고, 외자유치 경제특구개발 척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나 자체 가동, 외자유치 등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대신문 61기 수습기자 모집

제주대신문
입사
혜택

- 장학금 혜택(A급 우수학생기자장학금 또는 근로장학금 지급)
- 원고료(기사 성과에 따라), 취재 수수료(매월) 지급
- 현직 기자들로부터 취재교육(취재보도, 보도사진 등)
- 실제 언론사에서 활용하는 편집 시스템을 통한 편집교육
- 언론사 취업 적극 알선
- 해외 원정취재 기회 부여(일본, 중국, 필리핀, 미국, 라오스, 몽골 등)

모집대상 : 아라캠퍼스, 사라캠퍼스 학부 1학년

원서마감 : 5월 10일(금) 오후 6시

장 소 : 대학원동 3층 언론미디어센터 제주대신문 편집국

문 의 : 제주대신문(064-754-2277~9)

청춘 20대, 꿈을 쫓아



